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 흉수와 가뭄의 재해로 혼란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의 자비로우신 손을 길로 덮어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 이가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8월 13일 (토) 제 188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힐송교회 찬양, 계속 불러야 하나?

CT, 힐송교회 잇달은 문제들 노출로 인해 예배 찬양으로서의 힐송 노래 논란 소개/대안 제시

대중교회 스캔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고 해서 보통 주일 아침 예배 찬양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힐송은 단순한 초대교회 찬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배음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다.

1994년에 시드니에 기반을 둔 힐송의 "내 구주 예수님(Shout to the Lord)"이라는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후 힐송은 미국, 특히 오순절파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힐송 유나이티드(Hillsong United)와 힐송 영앤프리(Hillsong Young and Free)의 팝과 록 사운드는 주일의 예배당, 라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콘서트 순회공연을 통해 미국인들 곁에 다가왔다.

현재 교회에서 부르는 10대 찬양 중 4곡이 힐송의 노래다. (주의 선

하심 (The Goodness of God), 그 이름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 날 자녀라 하시네 (Who You Say I Am), 지극히 높으신 주 (King Of Kings))

그러나 연이은 뉴스 헤드라인은 힐송 리더십 사이의 도덕적 실패, 학대에 대한 비난, 잘못된 내부 구조, 목사의 사임, 교단을 떠나는 신도들에 대한 폭로를 잇달아 보도함에 따라 일부 예배 지도자들은 그러한 힐송의 음악적 열매가 자신의 교회 사역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Should We Keep Singing Hillsong? When the megachurch's former pastors are in the news with allegations of scandal and abuse, what a contentious name it is).

최근 힐송의 상황이 힐송: 메가 처지 익스포즈드(Hillsong: A Megachurch Exposed)에 소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힐송 뉴욕 교회의 목사인 칼 렌츠의 2020년 해임과 관련된 디스커버리+의 다큐멘터리다.

오랜 힐송의 팬이자 찬양 리더이며 학대 피해자인 케이티 스투러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힐송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슬픔의 단계를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그 이름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와 같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불러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저는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이 찬양은 나와 다른 이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그녀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힐송과 연관시키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야기한 피해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창립자인 브라이언 휴스턴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3월에 교회를 떠났고, 아버지의 학대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다 교회들은 예배에서 힐송 음악을 계속 연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은 수 세기 동안 논란이 있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들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마이클 잭슨과 R. 켈리 같은 현대 대중가수에 대한 폭로로 인해 청취자

들이 음악 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해왔다.

우리는 역사적인 작곡과 빌보드 음악을 예배음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예술과 예술가, 또는 예술과 그것을 생성한 시스템 사이의 분리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힐송음악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추락한 목회자들의 사역 홍보를 둘러싼 고민과도 평행을 이룬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다윗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가 죄인이 지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무엇이 남습니까?"라고 바로 되묻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배음악을 만드는 능력(조형적 능력)에 대해 높은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금세기 기준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선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막아야 한다!

PNAS,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결과에 관한 연구 부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요구

인류 멸종 등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결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새롭게 게재된 이번 논문(Climatic Endgame: Exploring catastrophic climate change scenarios)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에 관한 "연구가 위험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엔드게임"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유엔(UN) 과학자들이 재앙적인 변화 위험 요소를 조사할길 촉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루려는 시도가 주류 과학계의 연구보다 오히려 '2050 거주 불가능 지구'와 같은 인기 과학 서적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1850년보다 기온이 섭씨 1.5도 또는 2도 높아진,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금세기 기온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선 세계 경제가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인류 종말 등을 내다보진 않는다.

물론 이렇게 기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는데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 (2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창 류인현 목사



광복절 77주년과 건국절 74주년 최복락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지교 - 미용성형지교 - 신경 및 잇몸치료

[성경일독을 돕는 Bible Reading Guide]

2022 전문강사스쿨 신입생 모집요강

①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을 수료하신 모든 분 ②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③ 스쿨일정: 2022년 9월 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④ 강의방법: ZOOM
⑤ 특징: 목회자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모교,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⑥ 사차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스쿨은 미얀마 AV를 고려하여 Two Track(PS&BS)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개인 분별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BS7(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박제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BETWEEN MISSIO SEMINARY (FORMERLY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AND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시오신학교(구. 비블리칼 신학교)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OU 체결

복음의 임팩트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특 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가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신학과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생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및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2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6일(화) - 9월8일(목) 저녁8시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광복 이후(以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일모레면 광복 77주년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자유만이 광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통일과 번영과 섬김이 자유의 뒤를 따라야 한다. 분열 속에 무슨 자유의 기쁨이 있으며, 배고픔 속에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섬김보다 탐욕을 선택하는 자를 어떻게 진정한 자유인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남북과 동서의 통일이 있는 자유, 민족의 번영이 있는 통일, 세계를 향한 섬김이 있는 번영이 아니라면 일제의 강점이 못지않은 슬픔을 자아낼 것이다. 광복 못지않게 광복 이후가 중요하다. 광복절 노래를 다 기억하시는가. 놀랍게도 광복절 노래는 쓰러진 일제 강점기를 회상하기보다 진취적 미래를 더욱 바라보고 있다. 광복절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오 보시려던 어른님 뺨뺨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어린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북을 심어 잘 가꿔 갈라 하를 달게/ 세계에 보람될 기록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는 지난날의 원한에 사무쳐 있지 않고,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세계 지향적 비전을 선포하며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 정황이 말하기를 광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수많은 기독교인이 학살을 당할 뻔하였다고 한다. 일제에게는 한국의 기독교가 눈에 가장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의 강점기 정책에 항상 강력한 저항은 기독교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의 기독교는 그 시대의 역사와 유리(遊離)되어 있지 않다. 한국 기독교도 그렇다. 한국의 기독교는 개화기 때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앞선 역할을 하였고 민족과 인생의 기본권까지 말할해 가던 일제 강점기 때에 저항운동을 통해 한국이 자유를 되찾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광복 이후 기독교는 6.25 전쟁,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두 역사의식에 깨어있던 기독교의 역할이었다.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은 일반인의 역사의식과 다르다.

한국의 최초 선교사들은 한국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했다. 복음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역사를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다. 광복 이후 대부분 한국인이 일제 강점기를 식민사관(植民史觀) 또는 민족사관(民族史觀)으로만 바라보려 하였는데 그 관점을 선교사관(宣敎史觀)으로 보는 일이 기독교에서 일어난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오는 혐박(僇擗)과 회유(懷柔)에 저항하고 순교하는 기독교인을 배출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정결하고 강력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에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역사의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축박이었다. 광복 이후 분명하게 갖게 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교사관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향후 한국 기독교의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특히 팬데믹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식은 자신의 자구책 마련에도 경황이 없을 정도로 상실되어 있다.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끄럽다. 광복 이후 77년이 지나고 있다. 해방 이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려면 더 늦게 전에 올바른 역사의식, 곧 선교사관의 회복이 절실하다.

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 다음달 부터 실행!

AP, 보수 성향 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지법안 통과시켜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뒤,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인디애나

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Indiana becomes 1st state to approve abortion ban post Roe).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름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SB1)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가 됐다. 현재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장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 법은 대부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수정 뒤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새 법에 따라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의료진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하거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뒤로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부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한 여성을 보호하



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19명 중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AP는 이는 입법부뿐 아니라 인디애나주 전체적으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주간 의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승인된 이날 의회 밖에서 낙태권 찬성론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1면에서 계속)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에 서명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기후변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과학계가 설명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과학계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번 연구의 논지다.

주 저자인 케임브리지대의 루크 캠프 박사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는 온당하다고 본다"면서 "이 지구와 우리 인류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3도 이상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그 실현 가능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 만약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경우 2070년까

지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 몇몇 지역에 사는 20억 명이 연간 평균 기온이 29도인 상황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저자인 난징 대학의 치수 박사는 "현재 연간 평균 기온이 29도인 곳은 사하라 사막 및 페르시아만 일대 등으로 약 3000만 명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70년까지 연간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 및 정치적 결과는 핵보유국 2곳과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한 실험실 7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재앙적인 연쇄반응으로 이어질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높아진 기온만이 문제가 아니다. 논문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및 금융 위기, 분쟁, 질병 등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추가 기온 상승을 일으키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급변점이 언제일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기온으로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며 메탄가스를 방출하

거나, 숲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보다 배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재앙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특별 조사를 요청했다.

비록 두려울지라도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 영향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대기에 냉각제를 주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후 공학 연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인류의 과감한 개입이 미칠 위험 요소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면 대중에게 실상을 더 잘 알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캠프 박사는 "암울하나 실현 가능성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계와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핵전쟁으로 핵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론이 그 예입니다. 덕분에 7, 80년대 군축 바람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는 대중을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후변화와 관련하여도 유사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비슷한 영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젊은 기후 활동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중이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러한 재앙적인 시나리오에 관한 언급을 피한다는 것이다.

청년 기후 활동가인 로라 영(25) 또한 "재앙적인 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의 모든 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면서 "완전한 진실과 모든 잠재적 영향력을 모르는 상태에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수 없으며, 기후 행동을 이끌 만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몇 년간 기후변화에 관한 소식은 대중으로부터 숨겨지고 잘못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회피해왔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인류가 과거 지구 환경을 극한까지 몰아세운 결과에 대처해야 할 젊은 세대는 더욱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에리자베스 한인교회는 47년의 역사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이끄실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하신분 (Master of Divinity)
미국 장로교 (PCUSA) 혹은 개혁신교단 소속으로 PCUSA 가입이 가능하신 분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5년이상 시무하신 분

제출마감 및 연락처

- 제출 마감 : 2022년 9월 18일까지
보내실 곳 : Korean Church of Elizabeth 69B Myrtle St. Cranford, NJ 07016
E-mail : apply.kpce@gmail.com
전화번호 : 908-354-8488
문의 : 위의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 이력서 (PCUSA Form PIF에 의한 이력서 또는 자필 이력서)
자기 소개서 한글 및 영어로 작성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추천서 (2인 이상, 최소한 목사 1인 이상 추천)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로 첨부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신앙고백서 1부
목회 계획서 1부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69B Myrtle St. Cranford, New Jersey 07016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부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NYU School of Medicine 문자: 929-410-4475
180 Madison Avenue # 3-23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New York, NY 10016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송교회 찬양, 계속 불러야

(1면에서 계속)

지난 2년 동안 힐송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예배 지도자들은 신학적 근거에 따라 예배 히트곡들을 조사해왔다. 일부 교회에서는 신앙적 가치관의 충돌이나 사역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의해 이미 힐송(또는 베델 또는 엘리베이션)의 찬양을 예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회 안에서 힐송 음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이 골치아픈 뒷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피터 메이서 테일러 교수는 “음악학자들은 음악이 만들어진 상황과 음악 자체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경계를 매우 잘 그린다”라고 말했다.

때때로 그 경계선을 나누기가 쉽다. “18세기의 영향력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 30년 동안 엄청난 부유한 한 왕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교향곡 장르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거대한 교향곡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저 귀중한 작업입니다.”라고 메이서 테일러 교수가 말했다. “저는 왕실이나 부의 편중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도덕적 문제는 작품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이든은 비록 멀리까지 평행선을 유지하지만, 불공정한 체제나 부패한 조직의 후원의 산물로 음악의 출처를 조율한 작곡가의 예로 볼 수 있다. 힐송의 경우 권력, 부, 접근성 및 결탁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힐송 지도자들은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의 치우친 묘사가 교회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일 뿐 교회의 사역을 진실하고 공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일부 팬들은 힐송 교회와 힐송 음악을 분리했다. 그러나 심지어 힐송의 뮤지션들조차도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힐송 워십은 4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통해 캐스팅 크라운즈, 워터 킴과 함께 예정된 공연의 탈퇴를 선언하며 “독특하게 힐송 워십은 밴드가 아니며 밴드였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힐송교회의 확장이자 표현입니다.”라고 밝혔다.

브록 리거우드, 조엘 휴스턴 등 거물급 힐송 아티스트들이 나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의 직원일 뿐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표현함으로써 힐송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인기를 끄는 영적으로 자양분이 되는 음악을 개발했고, 그 음악을 통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섬기는 조직이 나쁜 조직임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메이서 테일러 교수가 말했다.

힐송은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것 외에 공연 로열티도 교회에 주는 특이한 음악 저작권 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적 결탁에 의한 죄책감에 걱정하는 예배 지도자들에게 힐송과 그 음악 사이의 재정적 연결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일 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조직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서양 캐논의 또 다른 거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유산은 반유대주의와 히틀러가 독일의 위대함의 상징으로 그의 음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주 논의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주의하더라도 그의 작품을 포함하지 않는 시대의 대학 교육 과정은 찾기 어려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 예배의 맥락에서 찬양 인도자와는 달리 음악 역사가는 광범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특정 작곡가의 전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음악 작품을 가르치고 참여시키는 이점이 있다.

마이클 잭슨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관한 2019년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는 팬들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유산을 재고하도록 했다. 가디언즈의 수석 편집자 알렉시스 페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을 역사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의 음악은 너무도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위대한 예술은 끔찍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고 재능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한 그의 음악을 계속 듣는 것은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가가 당연하게 ‘선’을 구현한다고 믿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독한 실수다.”

미국 찬송학과 대중음악의 전문가인 머서 테일러는 여전히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비디오를 대학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빌리진은 백인이 아닌 아티스트가 MTV 방송국에서 방송한 첫 번째 비디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이클 잭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

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힐송의 음악 제명을 취소 문화의 한 예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고 예배음악 형성에 중요한 노래에 대한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없애려는 성급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일종의 변형 복음이나 기독교의 유명한 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힐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음악가 댄 코건은 2016년 그의 블로그에서 “내가 그 목사들의 설교를 인용하거나 그가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의 밴드가 작곡한 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교리상으로 견딜 수 있지만 신학에 의문이 있는 누군가가 작곡한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달리 힐송이나 베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향력 있는 두 교회의 활동적인 사역에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예배음악 산업은 항상 시장과 교회의 압력 아래 불편하게 존재해 왔다. 음악학자들이 예배음악을 발표할 때 하는 흥정은 이념적 보이콧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충동이 그들의 음악에도 적용되리라는 것이다.

메이서 테일러 교수는 힐송의 경우 음악이 예술적, 정신적 가치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품으로 세상에서 여겨지며, 브랜드 이름으로 세계에 진출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브랜드 뒤에 있는 조직에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름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와 다른 힐송 히트곡들이 여러 교회의 정규 찬양목록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힐송은 많은 성도에게 의미 있고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기억에 남는 노래들을 만들어 왔다.

복음주의 신학 협회의 전 회장이자 복음 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오를라호마주 샘 스톱즈 목사는

지난여름, 블로그 게시물에서 힐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는 힐송의 신앙고백과 가사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스톱즈 목사는 “나는 최근에 힐송을 뒤흔든 스톱즈를 결코 지지하거나 눈감아 주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역 접근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불일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힐송이 작곡한 성경적인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든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부르는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으며 율법적이고 배리배리한 지역 교회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많은 예배 지도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동명의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신경쓰기 보다는 친숙함과 가창력은 물론이고 노래 자체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스러시는 많은 예배 지도자들이 힐송음악을 계속 사용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노래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예배 지도자들은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예배 지도자로서 스러시는 힐송에 대한 관심이 지도자와 예배자들이 음악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정직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다른 지도자들도 그들의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를 의문을 가질 것이다.

가디언지의 무용 평론가인 린지 윈심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 “그 사람과 심지어 책장에 꽂혀있는 음반까지는 비난하더라도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썼다.

이상하게도 아주 다른 두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각 개인이나 회중이 힐송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는지에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음악으로 인한 심오한 영적 경험에 대해 수치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크리스치너티 투데이, CT에 글을 쓴 Kelsey Kramer McGuinnis는 음악학자, 교육자 및 작가이며,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음악을 연구한다).



시론

강자(强者)의 폭력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의 낙태와 관련된 판결에 의해 낙태는 더 이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아닌 각 주의 회의에서 가부(可否)의 여부를 의결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여러 지역에서 낙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센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향해 한 발언이 틱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아에게 젖을 먹이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사실 너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너를 살려주기로 결정했어!” (I could have killed you, but I chose to let you live.)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나는 이 여자아이가 살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죽일 수도 있었다’는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을 향해 산모는 오히려 아이의 얼굴을 톡 치면서 한 번 더 “난 너를 생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를 생존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말에 다 표현되지 않은 내용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해 주었으니... 그러나 너는 평생동안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가졌었다!’라는 나머지 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21세기 삶의 한 모퉁이입니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겹겹의 이해관과 자제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태아의 생사(生死)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의 한 켠에는 ‘강한 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아슬아슬한 생(生)과 사(死)의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력이나 혹은 권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더 약하거나 아주 무력한 사람을 향해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첫 출발점이 ‘태아의 생사권을 산모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게 들려지는, 그러나 시간의 진행과 함께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 논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적 우위의 힘을 가진 임신부가 아무런 방어력도 갖지 못한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자기 배 속 태아의 생과 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논리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2022년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모험만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고통스런 죄의 짐을 남겼듯이 오늘 그 죄짐을 지고 있는 인류에게 또 다른 선택, pro-choice가 무거운 짐덩이를 하나 더 지우고 있음을 봅니다.

이 어두운 시대 한 가운데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읍시다. 그 소리는 첫 인류 아담의 선택이 빛은 고통스런 현실 앞에 창조주가 선택하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피로 얼룩진 진한 초청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더 분명하게 더 넓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향해 한 발언이 틱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아에게 젖을 먹이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사실 너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너를 살려주기로 결정했어!” (I could have killed you, but I chose to let you live.)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나는 이 여자아이가 살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죽일 수도 있었다’는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을 향해 산모는 오히려 아이의 얼굴을 톡 치면서 한 번 더 “난 너를 생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를 생존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말에 다 표현되지 않은 내용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해 주었으니... 그러나 너는 평생동안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가졌었다!’라는 나머지 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21세기 삶의 한 모퉁이입니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겹겹의 이해관과 자제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태아의 생사(生死)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의 한 켠에는 ‘강한 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아슬아슬한 생(生)과 사(死)의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력이나 혹은 권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더 약하거나 아주 무력한 사람을 향해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첫 출발점이 ‘태아의 생사권을 산모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게 들려지는, 그러나 시간의 진행과 함께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 논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적 우위의 힘을 가진 임신부가 아무런 방어력도 갖지 못한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자기 배 속 태아의 생과 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논리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2022년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모험만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고통스런 죄의 짐을 남겼듯이 오늘 그 죄짐을 지고 있는 인류에게 또 다른 선택, pro-choice가 무거운 짐덩이를 하나 더 지우고 있음을 봅니다.

이 어두운 시대 한 가운데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읍시다. 그 소리는 첫 인류 아담의 선택이 빛은 고통스런 현실 앞에 창조주가 선택하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피로 얼룩진 진한 초청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더 분명하게 더 넓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

hankschoi@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2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장일기

청소노대(靑小老大)현상의 해법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대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청소노대'(靑小老大)현상이다. 이 청소노대라는 말은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즉석에서 만들어본 신조어 숙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줄어들고 노년 세대들은 늘어나는 현상을 빚낸 말이다. 이 청소노대 현상은 비단 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20년 전에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 청소노대 문제의 해법으로 실버 선교위

원회를 조직했었다. 교회 제직회 부서에 그 당시엔 아주 생소했던 '실버선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책과 활동을 착수했었다. 그리고 2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뉴욕의 20여명의 담임목사들에게 각 지교회가 당면한 청소노대 현상의 해법으로 실버 선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었다. 각 담임목사들은 영감이나 눈치가 9단이라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는 감각으로 16분의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의 뉴욕 실버 선교회 출범이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18년이 지나면서 800명의 실버 선교 훈련자들을 배출했고 매 학기가 끝나고 중남미 지역의 단기

선교 현장 사역을 통해서 연인원 900명 이상이 단기 선교사역으로 섬겨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기 선교지 현장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현재까지 종신 실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가정들이 14가정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교회만 해도 3명의 실버 선교사들이 현재 멕시코와 케냐 그리고 하와이에서 평생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모두 8학년이 가깝거나 넘은 고령의 실버 선교사들이다. 그런데 이 실버 선교사들은 젊은 목사 선교사들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첫째로는 자녀 교육을 이미 오래전에 초월한 분들이다. 오히려 저들의 성장한 자녀들이 아

버지의 선교 사역 후원자들의 역할을 독특하게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실버 선교사들은 평생동안 쌓인 신앙과 인생 그리고 삶의 축적된 노하우들을 선교지에서 풀어 적용하게 함으로 젊은 선교사들과는 질적인 차별화 선교를 하고 있다.

실버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강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과 이미 거론한 인생의 노하우가 무진장하다는 점이다. 99% 무슬림 지역에서 젊은 목사 선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실버들은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예우 전통으로 무시당하지 못한다. 저들의 추상이라고 해봐야 기껏 50세 안팎인데 어찌 인생의 대선배인

6.7학년생 앞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실버 선교사들의 전문화 사역의 도구는 일생을 통해서 직업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가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수 출신의 실버들은 자기의 전공을 선교지에서 활용하면 그 이상의 좋은 도구가 어디 있겠는가? 수의사로 은퇴한 실버 선교사가 중남미에 가서 돼지와 가축 사육을 통해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지역 원주민들을 섬기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영농 사역을 통해서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고 농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16개의 교회를 개척한 실버 선교사가 갈렙의 나이에 육박하고도 견제하게 사역 중이다.

그 동안 뉴욕실버 선교회에 동역했던 담임목사들이 18년이 지나면서 모두 은퇴를 하고 후임으로 젊은 목사님들로 교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들은 여전히 청소노대 현상의 심각성은 이해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가운데 지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런 목

사들과 함께 실버 선교의 비전을 나눔으로 금세 동참하겠다고 수락해 온 분들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앞섰던 시카고 지역과 뉴저지 실버 선교회에서도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 뉴욕의 실버 선교가 한국의 시니어 코리아를 출범하도록 도화선 역할을 했었고, 하와이와 호주지역에서도 실버 선교가 출범하도록 도왔다. 캐나다 지역이 여러 해 전부터 실버 선교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직 출범을 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질 청소노대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실버 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움이나 나눈이 필요하면 연락해주면 최대한 함께 나눌 것이다. 날이 갈수록 극대화되어가는 세계적인 청소노대 현상의 해법 - 오직 실버선교 운동임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문의-silvermission.ny@gmail.com)

jykim47@gmail.com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푸/른/초/장

류인현 목사 (뉴프론티어교회)



지난 코스타를 통해서 함민복 시인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시를 알게 됐습니다. 함민복 시인은 한 주인이 자기 집 담장에 화분을 쪽 놓아둔 걸 보고는 인싸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의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한다면 화분이 걸림돌이 되겠지요. 보통은 쇠창살이나 깨어진 병들을 담장 위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화분을 놓아둔 거죠. 아마 미관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밤손님이 그 담장을 넘으려고 한다면 그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뜨릴 확률이 높고 화분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에 주인은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요. 주인은 미관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시인은 모든 일, 모든 것에 선긋기를 좋아하고 경계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경계의 그 자리를 허물자 거나 없애자고 직접적,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한 시로 세상 앞에 강렬한 도전을 주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바로 경계에서 꽃을 피운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을 긋고 경계를 그어 놓은 사마리아 땅 그 경계에서 꽃을 피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역사적인 골이 깊어 쉽게 풀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인종적 편견과 감정적 대립이라는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복음으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의 인종차별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BLM이나 Asian Hate Crime 같은 걸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도 사실 예외는 아니지요. 수백만의 다문화 가정 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로부터 열마나 심한 인종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겁니까? 국경의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의 마음 안에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몇 해 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시소가

놓이고 양 나라 어린이들이 그 시소에서 함께 노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요.

주 예수의 복음은 주인과 종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고,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의 담장을 허물고, 지성소와 성소를 경계 짓는 휘장을 찢어 버렸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일되고 서로 간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늘을 거부하며 땅에 쌓아 올린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선에 피어난 아름다운 생명의 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환영받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경계는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이 땅에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

을 찾아 유대 땅의 경계를 넘습니다.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그 여인이 경계를 넘도록 옷자락을 내어 주었습니다. 귀련틴을 해야 하는 나병환자들이 귀련틴에서 벗어나 경계를 넘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사회적 감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죠.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거란 걸.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사랑은 선을 넘는 거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는 원래 경계란 없었습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인간이 그저 지도에 그려 놓은 보이지 않는 선일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나라요 한 가족입니다. 담장이 없고 경계가 없죠. 천국은 모든 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빌립은 원수 된 사마리아인들을 편견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복음을 외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도시 안에 큰 기쁨이 넘치며 복음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이 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 고국을 떠나 여기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힘든 유학생생활과 이민생활을 통과하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이민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단지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남 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디아스포라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흘으시고 보내시고 때로는 고난

다. 그리고 죽음은 죽기보다 싫어하죠. 삶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 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에 있다고 고백한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그 누구보다 더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부터 하나님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형이 동생 죽이는 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약의 모습들이 넘치게 되었죠. 고통, 재난, 핍박, 악은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복음의 열정을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 형벌로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은 산해드린 공회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이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스테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라는 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꽃핀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오히려 복음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였고, 팬데믹 동안에 드러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확신을 더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떠난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약화된 것은 아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비신자들이 찾아오고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경계에서서 꽃을 피우는 복음의 프론티어가 되십시오. 미국 땅에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경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재난과 악과 고통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부흥을 약화시킨

이런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는 말임을 알면서도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싫어합니

경계에서 꽃 피우는 사람

사도행전 8:1-8

예배, 회개의 눈물

아무리 생각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인생도 한가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하신, 한가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원리이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라. 오직 한가지 이유로 흥망의 역사를 가져왔다.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쫓았을 때,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 그가 섬기는 나라까지 망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왜 그런가? 예배에 실패는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하늘 문이 닫혀 버리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항변한다. "인생은 원래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따름인데, 사람이 다 실수가 있는 법 아닌가? 그런데,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버리고 망하게 하시면 어쩐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회복이 될 터인데, 그런데

다 자기 생각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머리에 씌워진 왕관을 지켜보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교만에 빠진 것이다.

교만은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울은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이 인도하는 실패의 지름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바로 예배의 실패이다. 교만하면 예배가 시시하게 여겨진다.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향복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다.

예배의 실패, 회개의 부재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은혜가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배의 실패

급급했다. 그 모든 핑계 속에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심령이 이미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배의 실패, 삶의 실패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를 살리는 회개의 심령을 맞보는 것인데,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 이를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림받게 되었다. 블레셋에 의해, 자신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낱 한시에 세 아들까지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막동이 므비보셋은 도망치다가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가문이 멸족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교만함이 예배의 실패가 자신과 가정 가문, 국가의 실패와 위기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사울 개인에게 나타난, 실패한 예배자의 결론을 보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 길보아 산 위에서 죽었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오늘날도 최악의 유무를 넘어서서, 예배에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 유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가정, 자녀, 가문,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배에 은혜받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이 말라 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함이다.

사울 왕에 비해 다윗은 더 악하고 험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살인교사 등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보전한다고 약속도 하셨다. 그런데 사울 왕이 받은 징계에 비해, 다윗은 너무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사울은 애매하게 사 람을 죽이지 않았다. 다윗처럼 성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예배에 실패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던 것 뿐이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징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것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회개는 회복과 축복

- 교만, 실패, 멸망 -

예배에 실패한 영혼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의 대표적인 현상인 '회개의 눈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만과 예배의 실패

단적인 예가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하기 그지없는 지파였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기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탄생한 것이다. 도저히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파, 가문에서 왕을 배출한 것이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때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겸손히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부족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러했다. 겸손했다. 성령도 경험하고 방언까지 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보

패를 통해 은혜를 덧입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니,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예배에 실패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들리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자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이다.

사울 왕의 교만은 예배의 실패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학교대하며 기다린다. 전쟁을 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위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약속한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버린다. 예배를 해치워 버린 것이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자, 그가 대답한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말한다. 부득이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할 수 없이, 억지로,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해 지웠다는 의미가 된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속에 뭐가 없는가? 잘못을 범하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서 대낮은 후회일지라도 사무엘이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회복되고 살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아니하고, 오지 않는 사무엘과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원망과 핑계하기에

데, 목이 잘렸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시체가 벤산 성벽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목이 잘린 채로 그 시체가 한참이나 떨어진 성벽까지 아마 질질 끌려서 갔을 것이다. 예배가 실패하고, 회개에 인색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실 때 너무 비참하게 버리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시면, 인간이 가지는 명예와 형색과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무 절절하게 그 느낌이 다가온다. 사울 왕이 죽었던 길보아 산에서 벤산 성벽을 가려면 개울도 지나고 돌밭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까지 목이 잘린 채로 질질 끌려가서 벤산 성벽에 턱하니 걸린 게 사울의 마지막이었다고 할 때,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함이었고, 회개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맞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인생의 최악된 교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만큼은 온전하고자 몸부림을 쳤더라면, 그는 회개했을 것이고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 죄가 예배와 관련되다 보니 살길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이다.

회개와 회복, 결론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될 틈이 없다.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종말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3년 전에 졸업하고 남가주의 어느 교회 청년 담당 30대 부목사입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독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쓸모있고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효과적인 미래 사역을 위해 목사로서 저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나하임에서 Nam 목사

A: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미래의 목회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귀한 사명의 길을 가는 목사님을 격려합니다. 오늘날은 남가주에도 이민 교회 목회자의 사역과 삶이 쉽지 않기에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일군을 찾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의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꿈꾸는 목사님께 ABCDE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1) A-Appearance, (외관 외모) 이것은 미남형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를 가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감독의 자격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단정하며는 의복이나 외모나 행동이 단정한 것을 말합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지도자이기에 외적인 자신의 모습도 잘 가꾸어야 합니다.

- △ A-Appearance, 단정한 외모
△ B-Behaviour, 품행, 행실
△ C-Character, 성품, 인격
△ D-Dedication, 헌신
△ E-Education, 교육

2) B-Behaviour, 이것은 품행, 행실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으로 단정한 인상을 풍긴다 할지라도 목사는 품행이나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잘못된 품행으로 공(功)을 들여 쌓은 목회를 하루에 공(空)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후 4:12)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못 해 교회에서 사임하는 것보다 행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윤리학자는 인생의 4/5는 행위 문제라 하였으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C-Character, 성품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좋은 인상 좋은 품행에는 반드시 좋은 성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화를 잘 내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잘 참지 못하는 것은 목회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인격을 바탕으로 설교를 할 때 교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교인을 한번 속이기는 쉬워도 계속 속아 줄 교인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도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셨지만, 그분의 성품은 더욱 탁월한데 겸손과 온유 그 자체입니다. 목사가 너무 손해 보지 않으려 하고 똑똑하게 굴어도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은혜롭게 하고 날카로운 데가 있어도 인간관계는 조금 바보스럽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은 인기보다 인격,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4) D-Dedication, 헌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목회사역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사의 목회와 설교사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일단 목회의 길에 들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한 길만 달려야 합니다. 조지 헉필드의 말처럼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5) E-Education, 교육입니다. 계속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로서 배우는 학생을 말하며 리더의 영어 Leader는 Learner(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Reader(책을 읽는 자)입니다. 옛날 한석봉 시대에는 글공부 10년이면 되었으나 지금은 전문인 시대이기에 목사는 설교 전문가요 목회전문가이기에 성경과 신학 서적 고전과 현대의 양질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davidnjon@yahoo.com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무능하고 못한 자신”

젊은 날에 유도 선수로 활동 하였던 분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침대에서 살짝 일어나려고 시도를 하는데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 제게가 방문하면 침대에서 살짝

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을 때도 스스로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물컵을 가져와서 손에 쥐어 주면 그제야 자신의 손으로 물컵을 잡고 물을 마십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어서 체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토대 위에서만 무엇이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맺는 원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연상하게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생각으로는 스스로 물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물컵을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으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시도를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백전백패의 실패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며 자신의 무능함과 못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면 가장 감사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함과 못남을 철저히 깨

닫는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존할 때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은 복종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그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에 반드시 따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요한복음 15:7). 그리스도를 의존

하는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왕좌의 자리를 점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서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무능하고 못한 우리 자신을 밀어내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날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우크라 곡물 화물선 도착하자 세계 식량 가격 급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화물선 도착 소식에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도 하락해 90달러 선 아래로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터키)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실은 두 번째 화물 선단이 이스탄불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착한 화물선은 파나마 선적의 나비스타호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출발했으며, 3만5000t의 옥수수를 싣고 왔다. 몰타 선적의 로젠호와 터키 선적의 플라네트호 두 척은 조르노모르스크항에서 출발해 이스탄불에 무사히 기항했다. 이 두 척은 영국으로 갈 예정이다.

세계 식량 가격은 이번 흑해 항구 봉쇄 해제 합의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된 영향으로 14년 만에 큰 폭으로 내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54.2) 대비 8.6% 하락한 140.9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격히 치솟아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을 찍은 바 있다.

7월 들어선 5개 품목군인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지수가 모두 하락해 2008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 하락도 전체 곡물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쌀은 주요 수출국의 환율 변동 등의 영향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곡물 수출에 관해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2.3% 포인트(2.12달러) 하락한 8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 때문으로 파악됐다.

美 해병 창설 246년 만에 흑인 4성 장군 처음 탄생

미국 해병대 창설 246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4성 장군이 탄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공언했던 정부 모든 부문에서의 다양성 확보가 소수인종 중용 인사를 통해 또 한 번 실현됐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마이클 랭글리(사진) 해병대 전력사령관(중장)이 최근 상원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부로 대장 계급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랭글리는 지난 5월 미 아프리카사령관(대장) 후보자로 지명됐었다.



랭글리는 기념식에서 “아프리카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군대 내에서의 다양성은 우리의 경

쟁자들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해병대는 1941년까지만 해도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모집을 거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한 후에야 흑인의 해병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부터 해병대에서 흑인을 모집하도록 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난 랭글리는 텍사스대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취임식은 오는 9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中, 진먼에 무인기까지 동원... 인도와 군사훈련 맞붙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남중국해 전역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용기와 군함을 투입한 중국은 대만의 최전방 도서인 진먼 섬에 무인기까지 투입했다. 이에 맞서 대만은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하며 맞불을 놔다. 미국은 인도와 오는 10월 중·인도 국경 분쟁지대 인근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SU-30 10대, J-16 4대, J-11 4대 등 중국 군용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1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함 14척도 대만해협 주변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진먼 섬에 무인기를 띄우며 대만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진먼 섬은 중국 푸젠성과 불과 1.8km 떨어져 있다. 무인기는 지난 3일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18대가 4일 연속 야간에 진먼 섬 상공에 진입해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7일 종료됐다. 하지만 당분간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군은 훈련 첫날인 4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동평 계열 탄도 미사일과 함께 대만 해협에 장거리포를 쏘아부으며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8일부터는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한 상태다.

대만도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만 육군은 9일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155mm 곡사포 78문과 120mm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사거리가 최대 1200km에 달하는 승평-2 미사일은 대만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데, 썬샤먼 같은 중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엔 진행되는 대만의 훈련은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발은 자제하되 중국의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훼손한 점은 중국과 대만 및 미국 사이에 돌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중간 국방부 실무 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며 미국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지대 인근에서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NN에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스키 휴양지 아우리에서 고지대 전투훈련에 초점을 맞춘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우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대인 실질 통제선(LAC)으로부터 약 95km 떨어진 곳이다. 중국과의 사이가 갈수록 인도와 손 잡고 압박을 하겠다는 의미다.

미·중 양국간 절전도 계속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은 역외 강대국의 부당한 개입과 빈번한 방해”라며 반박했다.

“BOGO” 인종차별 문자한 美 경찰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경찰 간부들이 인종 차별적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즉시 해고되고,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통으로 해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앨라배마 쉐لب 카운티의 빈센트시는 지난 4일 시 경찰서의 제임스 스리글리 서장과 존 L 고스 부서장 등을 해고하고 이들이 소속된 경찰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하나가 통으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건 최근 온라인상에 공개된 SNS 대화창이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752’라는 아이디의 유저는 “임신한 여자 노예를 뭐라고 부르지는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다른 유저들이 답을 공급해하자 ‘752’는 “BOGO”라고 답했다. BOGO는 ‘Buy One, Get One free(하나를 사면 하나는 공짜(담)이다)’의 준말로, 옛 노예제도에 빚대어 흑인 여성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를 주고받은 사람이 빈센트시의 경찰 간부로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제임스 래티모어 빈센트 시장은 지난 2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사안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빈센트시 홈페이지에 스리글리 서장과 고스 부서장 등이 해당 파문의 당사자라며 실명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경찰서를 해산하기로 했고, 두 경찰 간부의 파면 동의안에 찬성했다.

경찰서가 폐지되면서 현재 시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관련한 설명이 없다.

코리 에이브럼스 시의원은 이번 인종차별 사태에 대해 “이 문자는 우리 지역사회를 둘로 찢어 놓았다”며 “우리의 피부색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분간 빈센트 시민을 위한 경찰 업무는 쉐لب 카운티 경찰의 임시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한국은 홍수 난리인데 전세계는 가뭄으로 몸살

한국이 물폭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지구 반대편 유럽은 가뭄으로 땅이 썩어 갈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미 멕시코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맥주 공장까지 문 닫을 위기로 내몰렸다.



CNN 방송에 따르면 유럽가뭄관측소 조사 결

과 유럽연합(EU)과 영국 토지의 60%가 가뭄 경고나 경보 상황에 놓였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국가 토지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 ‘경고’ 상태이며 나머지 15%는 식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있는 ‘경보’ 수준이다.

유럽은 가장 더운 여름을 겪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은 섭씨 40도에 웃도는 날씨를 경험했으며 농작물은 직격탄을 맞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옥수수, 해바라기, 콩 생산량이 5년 평균보다 훨씬 낮은 8~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은 지난 7월 1836년 관측 이래로 가장 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영국 전역은 20여 년 만에 가장 건조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웃 나라 프랑스 역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프랑스의 7월 강수량은 채 10mm가 되지 않았다. 이는 1959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 1991년부터 2020년 평균 강수량보다 85%나 부족한 수준이다.

프레이야 팜볼 코페르니쿠스 수석 과학자는 “7월에 높은 온도와 낮은 강수량으로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농업 생산과 하천 수송, 에너지 생산과 같은 다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서양 건너 멕시코도 가뭄으로 신음 중이다. 세계 1, 2위 거대 맥주회사 공장이 물 부족으로 인해 섰다온 위기에 처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북부 물 부족에 대한 대처로 해당 지역에 있는 맥주 업체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더는 맥주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맥주를 계속 만들면서 증산하고 싶으면 남부나 남동부 지역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세계 1위 맥주 업체인 엔하이저부시 인베브의 자회사 그루포모델로와 2위인 하이네켄 생산 공장이 있다. 멕시코는 코로나 등 세계 최대 맥주 수출국 중 하나다.

현재 멕시코 북부 노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일대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 인근 주민들은 몇개월째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하이네켄 측은 지난달 말 용수 사용 허가권의 20%를 당국에 반납하기도 했다.

“호텔 할인 왜 안 해주” 하이난 관광객들 2차 날벼락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이난섬에서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돼 썬야를 비롯한 5개 도시가 봉쇄됐다. 하이난성 당국은 주민 1020만명과 수만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어 감염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처럼 장기간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썬야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이곳에서만 8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썬야에 이어 완닝, 단저우, 충하이, 링수이에서도 7일 하루 동안 두 차례 감염자가 나와 이동제한령이 내려졌다. 하이난성 북부에 위치한 성도 하이커우도 폐쇄 관리에 들어갔다. 하이난성에선 최근 1주일 동안 114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난성 보건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일정 규모에 도달했다”며 “계속해서 확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썬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되기 전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고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면서 확산세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C. 성경의 명료성 (Clarity)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럽고, 이해 불가능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평범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난해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의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하여 교사와 목사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약 1:5)

성경 명료성의 의미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벵후 3:16, 베드로가 바울의 글에 대하여 말하면서, "중간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나니라"고 했다.

또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에는 신비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의 명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케빈 데영 (Kevin DeYoung)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Kevin DeYoung, Taking God at His Wor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여가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것들의 총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믿는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인간의 지혜, 논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시편 저자와 같이 간구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부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Scriptura Scripturae interpret /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말을 매우 좋아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신다.

우리는 5살 된 아이에게 15살 된 청소년의 행동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이해가 커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성장하게 하신다. 신앙이 어릴 때

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예를들면 성경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말씀도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막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딤후 6:7) 라는 말씀도 있다.

성경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 사고방식 비슷한) 성공하라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는 말씀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19세기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노예문제이다. 북부 교회는

을 들었다. 과연 그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정당한가? 그 목사님이 성경의 명료성을 바로 이해한 것인가?

신앙의 영웅들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은 여러 명의 부인들 두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과연 다윗이 성군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문화적인 차이로만 볼 것인가? 물론 성경이 기록된 당시 고대사회와 지금 현대 사회의 수천 년간의 시간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때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다른가?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

자는 주장 등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좋은 성경 주석들과 연구 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하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문제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이해할 때에 죄가 우리의 지적 활동에 영향을 끼쳐 (noetic influence of si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편파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를 비롯한 우리 인간 전체를 타락시켰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타락을 지칭한다.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하고 유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세기 미국 남부 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성경을 해석하여 노예제도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설교하고, 이론을 전개했다.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은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 그들은 수심, 수백 에이커가 되는 농장을 경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남부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를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는 비성경적이며, 노예제도가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보지 아니하였고, 죄가 지성에 큰 영향을 끼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명료성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명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을 전체적인 입장 (성경신학적)에서 바로 해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성경의 명료성의 결론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존함과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달려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한 믿음도 없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시각을 더욱 확장시킨다.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면서 발전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근거로 "가르치는 권위 (the power of teaching, potestas magisterii)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과 주교에게만 가르치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한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성경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를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모든 진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교훈은 성경에서 모호하지 아니하고, 명료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들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에 잘 나와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아니

성경을 인용하면서 노예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rthern Abolitionists) 남부 교회에서는 성경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말이 없는데 그것을 주장하면 성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과 신약시대의 교인들도 노예가 있었다면서 (발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다. 미국의 남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북부의 공장주인들이 노예제도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북부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예보다 더욱 학대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남북의 신학자들과 교인들은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이와같이 성경의 명료성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큰 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

어느 목사님께서 창 9:25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셨다. 창 9:25,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목사님은 함의 자손들 (흑인들)은 노예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입니다. 고대사회의 신앙 원리와 지금의 신앙의 원리가 다를 수 없다.

물론 고대와 현대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아니하다.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차이를 너무 과장하면 안된다.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때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늘 21세기에 도 동일한 타락한 인간들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그 연구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때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에 Christian Reconstructionist (기독교 재구성 주의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그렉 반센 (Greg Bahnsen), 루사스 루스두니 (Rousas Rushdoony), 개리 놀스 (Gary North)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구약의 사회법 (civil law)을 현대 사회에 맞도록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죄수들을 감옥에 그냥 수감 해 놓지 말고, 사회에 나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적당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서 시간 얼마만 해결하지 말고, 앞으로 자기가 갈야만 할 책임을 가르쳐주며,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Galbraith, Danjok, Hongmei, Baskin, Bannell, Boston, Saeseong, Andok, Iljasa, Akerly, Youngsang, Killen, Winstone, Takoma, and other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4)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8. 죄를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

1) (징후분석) 방법1: -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들을 살펴라

(1) 고질적 습관

만약 어떤 죄가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타락시켜 왔는데, 그에 맞서 싸우며 치유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병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혹시 당신은 오랫동안 세상적 생각, 야망,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다른 의무들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당신은 수많은

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세력은 점점 더 커진다.

(2)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의 힘 앞에서 복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것과 은근히 타협하려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죄가 치명적인 수위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된다.

가) 죄된 생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 죄의 속성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게 되면 죄에 대해 관용하는 것이다. 그의 양심이 하나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이용해서 자신의 타락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고 오용한다.

(3) 죄의 유혹에 동조하는 태도

죄의 정욕이 치명적인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죄의 유혹이 성공을 거두고, 사람의 의지가 죄의 지배에 동조하는 경우이다. 정욕에 휘말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든 무심코 하든 그 결과는 동일하다.

(4) 죄와 싸우지 않고 논쟁하는 자세

사람이 죄와 싸워야 할 때 있어서 죄의 문제와 죄의 심판에

(5) 징계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

당신이 정욕으로 인해 고통하거나, 징계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때, 이것은 죄의 또 다른 위험한 징후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죄나 정욕을 허락해서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죄와 태만, 그리고 어리석음을 교정하신다.

(6) 죄를 교정하려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죄를 교정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욕을 통해 방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죄의 징후이다.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영혼 관리

두 달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 내외분과 식사를 했다. 그 목사님은 아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고 재미있어 한다고 전하며 유튜브의 어느 사이트를 소개해주었다. 이 사이트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영영하고 있었다. 미국에 돌아와 시가로 내가 뭘 안에는 운동 밖에 있는지 오락가락하는 시간을 보낼 때 이 사이트의 강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열심히 따라 해보았다. 정말 재미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강사는 운동을 인도하며 반복하는 말이 살을 빼려면 지속해서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고 당부하며 어머니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운동할 때 몸은 관리가 되고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만 관리한다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곧 육체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영을 관리하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목회자의 아내들은 관계에서 겪는 억울하고 힘든 감정들을 인정하는 대신 마음에 깊이 꼭꼭 눌러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일까? 목회자의 아내들은 신장성 위장 질환이 많은 것 같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외면하거나 꼭꼭 눌러두는 대신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다음으로 우리의 영은 어떻게 관리할까?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하며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따로 내 마음에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 16:8-9).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운동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감정과 영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도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 몸의 불편함과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지속해갈 때 점점 익숙해지듯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과 영을 관리하는 것도 동일하다. 처음에는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삶이 어색하여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훈련해 갈 때 어느새 우리의 내면이 예전과는 다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yanghur@gmail.com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정욕, 습관으로 자리 잡은 정욕 지금 당신의 정욕은 어떤 수위에 있는가?

날을 헛되고 어리석고 악한 생각으로 보내며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정욕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있다.

다윗은 고백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시 38:5).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정욕은 사람을 타락시키며 굶게 하고 영혼을 비참한 상태로 만든다.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결코 평화를 맞볼 수 없다. 특정 정욕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작전을 통해 영혼이 특별히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오랫동안 숨겨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각종 은사들의 도전 앞에서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 정욕은 속병으로 일단 사람 속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뿌리를 뽑기가 어려워진다. 그것은 스스로 죽은 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

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때,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죽이기보다, 오히려 전에 가졌던 좋은 경험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행동이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며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했던 유대인들처럼, 죄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을지라도 자신 속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태도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무시하려는 심리가 있다.

나) 죄를 죽이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는 대신에 죄를 은혜와 자비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도 죄와 타협하려는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드는 셈이다(유 4절).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치법 육신적인 거짓 논리에 쉽게 사로잡혀서, 육신은 ‘은혜’라는 핑계를 대고 더욱 방종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비와 관련된 말을

대해 논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그의 의지를 사로잡은 증거이며, 그의 마음속에는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는 징후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는 복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의 혐오스런 속성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경멸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창 39:9).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4).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율법적 자세에서 죄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강력한 복음의 요새를 떠나 스스로 정욕과 맞서 싸우게 되면 그 정욕은 즉시 당신을 삼키게 될 것이다. 적과 싸울 때, 천 배의 힘을 발휘하는 무기를 적에게 넘겨준다면 결코 당신은 적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찢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사 57:17).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이다!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욕을 죽이는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당신은 죄와 싸울 때 위에서 말한 그러한 위험한 징후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도라는 증거를 갖기 위한다면 성도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비록 성도이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곤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곤고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gcusa@yahoo.com / www.lagc.com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명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ac.org 170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2:00(대학부) 영어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hel@kb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실비지사랑교회 (Seal Beach Sp-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지 리저널 클럽하우스 3100(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회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00~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 2. 교외민심도 여성상담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8928 1200 S. Mainhatten Pl., LA, CA 90019</p>	<p>은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다미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e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전 9:30 오전 9:30 오전 7:00</p> <p>Tel: (213)600-2348, dcoo.kjm@g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저는 이상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

제가 부족하여도 너그럽고 이해성이 많으며 물심양면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과 도움을 주셨습니...

흔히 목사는 두 가지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복이요 다른 하나는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라고 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랑하고 그립고 존경하는 장로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며칠 전 팔십 팔세의 연세로 천국으로 가신 여사

장로님이 그분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충성된 분이셔서 교회장으로 천국 환송예배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장로님의 영적으로 사용할 사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은 거제도가 고향이고 원종목 장로님 이십니다. 일찍 최씨 가문의 훌륭한 분과 결혼하시고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입니다. 그 긴 세월 변함없이 사십 여년을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 오신 신실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이십니다.

저는 이 서신을 쓰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된 만남의 축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과 헤어짐은 행복과 사랑의 추억과 아쉬움의 여운이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과 헤어짐은 마음의 상처와 불행과 고통과 쓴 뿌리의 뒷맛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지금 만남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 만남을 경시하여 그 만남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음

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지혜자들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잘 가꾸어 가기도 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흔히 교회로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의 모임의 수효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몇 명이나 모이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전체의 수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크고 섬세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은 교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하와이로 이주하신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와이 가서 추첨을 하는데 이백 대 일로 콘도가 당첨이 되어서 이사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흔히 교회로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의 모임의 수효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몇 명이나 모이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전체의 수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크고 섬세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소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기의식과 주변의 공동체 전체에 마음의 비중을 둘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소명 의식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목회자들에게는 큰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모든 것에 만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우들 중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을 때, 저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목자의 능력에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은총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기적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렘 33:3) cyd777@hotmail.com



아태계 역사교육법안 통과 집회 단체사진

아시아태평양계-흑인 연대 구성

역사교육법안 통과 집회

반아시아 혐오범죄 해결을 위해 한인들이 중심이 된 아시아태평양계(AAPI, 이하 아태계)와 흑인계가 손을 잡았다. “Stop AAPI Hate”라는 대형배너가 붙어 있는 가운데, 8월5일(금) 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주 아태계 역사교육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이민자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 그리고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인 무지개연합(Rainbow PUSH Coalition)이 주최했다. 집회에는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등 아태계 단체

대표들과 흑인단체 대표들 200여명이 참가했다. 한인 및 아태계 참가단체는 아시아안메리칸연맹, 뉴욕한인회,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YWCA, 롱아일랜드다양성회의, 아시아안가정연합, 인도계개혁교회, 밀란문화협회, 미주타망소사이어티, 소수계권익협회, 미주마가협회, 뉴하이드파크중국인협회, 아시아안역사바로알기, 조선족협의회, 상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린 1부 행사에서 16개 공동주최 단체 회의

를 통해 ‘인종정의와 평등을 위한 아태계-흑인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설기구로 활동하게 됐다. LA 폭동 후 30년만의 일이다.

이들은 향후 인종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종 화합과 평등을 이루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공동 결의하였다. 결의문에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 간에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 인종주의와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소수인종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문을 2부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고,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인 “우리 승리 하리라”(We Shall Overcome)를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모두 함께 불렀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하여 “역사상 행사의 의미에 대하여 ‘연대회의’를 결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제공했다. 이 ‘연대회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과를 내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장신, 릴리재단에서 100만 불 지원 받아

‘한인교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제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는 미주 한인 신학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1세와 2세간의 화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역학 석사(M.Div. program)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영어 프로그램은 릴리 재단(Lilly Endowment)과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ATS)가 북미에 있는 270여개 회원 신학교를 대상으로 교회 발전과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이에 대해 미주장신은 그동안 연구하고 있었던 한인교회의 성장을 위한 KM과 EM 사이의 지속적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릴리 재단(Lilly Endowment)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00만 불을 지원받았다.

이상명 총장은 “한인교회 목회 사역에 있어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 간의 소통의 어려움과 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오랜 기간 논의되는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것은 목회자 간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인교회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성경적 신앙과 복음적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미주장신대는 1세 사역자와 2세 사역자 간의 문화와 언어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을 줄여가고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복합적 다양성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관해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장신은 한인 교회 내에서 세대 간 그리고 KM과 EM 간 이해와 협력을 이뤄내는 목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같은 신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됐고 이를 위해 미주장신학은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복음적 신학

교육과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회-인문학 교육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총장은 “미주장신 릴리 프로젝트를 통해 1세와 2세 신학생들이 충분한 목회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릴리 프로젝트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한인교회의 복음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역학 석사(M.Div.)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문의를 김루빈 처장, rbkim@pts.edu 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장신대에서 진행된 릴리 프로젝트 연구모임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터/뷰
샘병원 아프리카미래재단 박상은 대표

더 나은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박상은 대표가 최근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세계한인선교대회 참가차 미국을 여행 중. 귀국길에 LA를 방문했다. 기자와는 박 대표가 안양샘병원 원장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LA에 방문했을 때 안양샘의료병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만남을 가진 후 두번째 만남을 갖게 되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간의 상황을 들어보았다.

박 대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에서 생명윤리를 연수했다. 이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거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 외에 샘병원 미션원장,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국제보건의료학회장 등을 섬기고 있다. 지난해엔 제30회 JW중외박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박 원장은 2001년 안양 샘병원에 부임한 이후 진료부원장,

의대에 진학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주중에는 자유분방하게 놀다가 주말에만 교회에 와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하는 선데이크리스천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의대 본과 1학년 당시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리게 됐다. 온몸에 비늘이 덮이고 흉측한 모습에 거울을 볼 수조차 없었지만,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병이었다.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박 원장은 마지막에 수련회에 참석했다. 수련회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들던 중 자신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의사가 된 게 아니구나’ 진심 어린 회개가 쏟아졌다. 다음 날 거짓말치



박상은 대표

유하기 위해서는 병원은 물론 의과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목사들의 주장이었다. 박 대표는 샘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니어서 과연 그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현지방문을 실시하게 되

아프리카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여 자립 의료 시스템 구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통해 지역 공동체의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병원장, 대표원장, 지금은 미션원장으로 일하면서 ‘최상의 진료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초기 200병상의 병원을 1000병상 규모로 발전시켰다. 그는 2001년 병원봉사단체 ‘샘 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봉사와 함께 매년 1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말진료를 진행해 왔다. 또 모두 7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의료현대화를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펼치는 등 대북의료지원 활동에도 나섰다.

■ 교만했던 의대생, 마지막에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회심

‘현대의료선교학’(공저) 등 10여권의 전공분야 저서를 출간하기도 한 박 대표는 고 박용목 목사의 여섯째아들로 태어났다. 부흥사였던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서 모범적으로 자란 그는 어릴 적 심장병으로 소천하신 어머니를 보며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림 피부병이 완치되었다. 그런 계기로 회심을 경험한 박 원장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로 거듭났다.

■ 북한의료선교로 시작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되어 아프리카로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장은 북한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다.

“북한의료선교에 관심이 있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지요.”

감리교 목사들로부터 아프리카에 의과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남아공 북단에 위치한 스와질랜드와 남아공에 창궐한 에이즈를 치

었다고 말했다.

“목사님들의 권유로 2006년 현지방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구요.”

박 대표는 스와질랜드에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교육과 의료로 통해 아프리카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의 미래가 되시게 하자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 설립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외교부에 등록했다. 그 후 본 재단은 사단법인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대표적 사역으로는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에서 사역이다. 말라위에서는 에이즈퇴치사역을 했으며 사인스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잠비아에서는 병원을 세우고 간호대학과 보건대학을 세웠다. 보건대학은 준의사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학교이다.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김동수 박사 출판 감사예배

바울신학원 원장 김동수 목사가 성도의 견인과 배교에 대한 내용의 영어 신간 "Perseverance and Apostasy in the New Testament: Unpacking the Dynamic of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을 출판하여 감사예배를 8월 20일(토)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분당에서 오전 11시에 드린다.

▲문의: 뉴저지초대교회 201-767-0400

새생명선교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에서는 9월 1일(목)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 공연과 함께 성감체 박사의 유방암 관련 특강 "유방암 진단과 치료의 근황"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심의례 전도사 718-288-2447

뉴저지한인교회 이단 사이버 대책 줌 세미나

뉴저지한인교회 주최로 8월 22일(월) 오후 8시부터 Zoom을 통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가진다. 팬데믹 이후 교회가 새로운 전도방법을 모색하듯이 이단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 전략을 세우고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뉴저지교회는 온라인 이단, 사이버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일시: 2022년 8월 22일(월) 오후 8시
 강사: 탁지일 교수 (부산장신대교수,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Zoom 회의 ID : 833 6573 5117 / PW: 911292
 ▲문의: 이정환 목사(이단대책위원장) 201-587-3999

모세오경 차준희교수 특강 및 집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모세오경에 대한 특강을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를 강사로 9월 17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네 번의 특강을 연다.

일정: 1차(창세기, 부흥집회) 9월 17일(토) 오후 4시,
 2차(출애굽기) 10월 3일(월) 오후 8:30,
 3차(레위기, 민수기) 10월 4일(화) 오후 8:30,
 4차(신명기) 10월 5일(수) 오후 8:30

장소: 뉴욕기독교회 263-10 Union Turnpike Glen Oaks, NY 11004
 특강 수강료: 교재비 \$20 / 현장 구매, 수익으로 수강생 간식비 사용 예정
 ▲문의: 뉴욕기독교회 사무실 718-343-1593

뉴저지동산교회 EM 목회자 청빙 (폴타임/파트타임)

뉴저지 Little Ferry에 위치한 뉴저지동산교회(윤영호 목사)에서 EM 목회자를 청빙 한다.

자격조건: 영어 가능, 정규신학대학 과정(M.Div) 재학 중 혹은 졸업
 제출서류: 이력서(Resume), 신앙고백서(Personal Statement)
 사역내용: 영어예배 인도 및 수련회 인도, 성경공부, 성도 심방, 담임목사 사역 지원
 서류 제출 마감일: 8월 22일(월); 이메일 info@dongsanchurch.org 로 서류 제출
 ▲문의: 정명진 목사 201-229-1561, mj@dongsanchurch.org

뉴욕어린이양교회 EM / Youth 사역 목회자 청빙

뉴욕어린이양교회(박윤선 담임목사)에서 EM / Youth 사역 목회자를 청빙 한다.

자격조건: 영어 및 한국어 가능, 정규신학대학 과정(M.Div) 재학 중 혹은 졸업 EM / Youth 사역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Resume), 신앙고백서(Personal Statement)
 제출처: 이메일 webmaster@nylfc.org 로 서류 제출
 ▲문의: 뉴욕어린이양교회 718-899-8309

퀸즈장로교회 킹덤미션 2022 온라인 단기선교

총 6개국 대상으로 2박 3일간 개최, 다음세대가 주도한 단기선교

지난 8월 4일(목)부터 8월 6일(토)까지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는 킹덤미션 2022 단기선교를 2박 3일간 개최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10여개의 선교지로 현지 방문 단기선교 파송을 해왔지만 팬데믹의 여파로 현지 방문 선교가 중단됐던 작년년부터 선교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온라인 선교사역인 킹덤미션을 추진해왔다. 퀸즈장로교회에서는 이번 킹덤미션 단기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 간 전교인이 참여한 선교 바자회를 통해 모금하고 준비해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총 6개국(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20여 명의 모든 선교 대원이 교회 안에서



킹덤미션 2022 폐회 예배 후 단체사진

2박 3일간 함께 속박하며 각 나라별 현지 시간에 맞추어 Zoom과 Youtube등을 통해 라이브로 선교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집회, VBS 여름성경학교, 언어 수업 사역, 교사 세미

나, 의료 사역, 부흥회, 선교 세미나, 태권도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킹덤미션스쿨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아노를 배운 캄보디아 현지 스태프들의 피아노 협주 공연 영상을 공개하며 선교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교

대원들은 시간대가 정반대인 선교지의 현지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밤을 새가며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70여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선교활동의 주체가 되어 리더로서 모든 선교 사역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때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야하는 상황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선교지의 학생들과의 소통 가운데 오로지 소망이 예수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통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다음 세대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8월 6일(토) 오전 8시 30분에 6개국이 다함께 참여한 킹덤미션연합예배를 통해 각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현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선교사역을 마치고 폐회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 영어예배에서는 킹덤미션의 연장으로서 아리조나 인디언 사역을 위한 현지 단기선교팀을 파송했다.

(김재상 기자)



영생장학회 제6회 장학금 수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생장학회 제6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

“생명의 열매, 사람을 키워내는 열매”

영생장학회(장학위원장 심수목 장로) 제6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가 8월 3일(수) 저녁 7시 45분에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제1예배당에서 열렸다.

영생장학회는 2016년 영생장로교회 이용길 원로목사가 은퇴하면서 받은 전별금으로 설립되었고 이용길 목사의 어린 시절과 신학생 시절 도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돼, 지난 6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1부 감사예배, 2부 장학금 수여식 순서로 진행됐다. 심수목 장로(장학위원장) 사제로 시작한 1부 예배는 문희준 장로(장학부위원장) 기도, 김희수 집사의 성경봉독, 살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백운영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백운영 목사는 “연속적인 열매를 맺으려면”(요15:1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우리 안에 담긴 삶과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많은 열매 중 생명의 열매, 사람을 키워내는 열매에 예수님은 마음을 쓰셨다. 예수님도 제자를 키우고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향산 있게 하라’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 키우는 일은 연속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 영생장학회를 통해 열매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담임교역자인 영어권 교회 ELMC(Eternal Life Mission Church)의 조성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장학금 수여식은 이세영 집사(영생장학회 사무총장) 사 회로 이용길 목사(영생장학회 고문)의 영상축사와 정기예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 감) 축사에 이어서 장학금을 소개한 후 수여자들의 감사인사 영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학금 수여 후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이 장학금 수여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운영 목사의 마침기도와 송홍창 집사의 광고로 마쳤다. 영생장학회 제6회 장학금 수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장학금 2명,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장학금 3명, 다음 세대 지도자 장학금 4명, 디모데 장학금 5명, 일반 장학금 15명, 특별 장학금 1명 총 30명에게 \$41,400이 전달됐다.

장학금 수여자인 임지홍 학우(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Div)는 “영생장학회는 장학금 수여의 열정이 다양하고 목회자와 선교사로 섬길 신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비전을 세워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장학금 수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 열심히 섬기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후학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영생장학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학회 홈페이지(www.ypscsholarship.org)를 참고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뉴욕포럼 단체사진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뉴욕포럼 개최

한미수교와 동맹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영역별 세션 진행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단(대표 양춘길)은 KHN코리아네이버스(회장 최명덕)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단을 시행했다. 뉴욕포럼은 기념사업을 위해 미주에서 결성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단’의 주최로 8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러시제일교회(김정호 목사)에서 열렸으며 공동주최자로 한국에서 온 KHN 코리아 네이버스(이하 KHN)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개회식은 사회 황영송 목사(사무총장), 개회사작 기도 남궁태준 행정국장(KHN), 포럼 경과 보고 사무총장, 환영사 양춘길 목사(상임대표), 개회사 이정익 목사(KHN 이사장),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의의 최명덕 KHN 회장, 축사 황하균 목사(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익 KHN 이사장은 “미국과의 수교로 인한 가장 큰 은혜는 기독교와 신문화의 전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영국과 독일을 이어온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한미 관계의 어제를 되새기고 오늘을 분석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계기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후러시제일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호 목사는 “이민 초기에 사회안전망적인 공동체성을 담보하여 주된 한인교회가 이제는 한인사회를 향한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회가 교회를 넘어 한인사회와 한미관계 우호증진 역할에 대해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영역별 세션에서는 선교영역, 역사영역, 경제영역, 사회영역, 과학영역, 정치영역, 안보환경영역 별 발표를 통해 한미수교와 동맹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뤘다. 7월 30일(토)에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식이 서재필재단(필라델피아)에서, 31일(주일)에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예배가 뉴저지 필그림선교회에서 열리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열매 있어”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7월 월례회가 8월 3일 수요일로 연기되어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케더린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한준희 목사 사회로 기도 박성원 목사, 오카리나 특주 김사라 목사, 말씀 전희수 목사, 합심 기도 권케더린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마태복음 25:31-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전 목사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

다.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이라며 “미동부기아대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과 복음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아대책이 되라”고 부탁을 했다. 권케더린 목사의 인도로 각 선교지의 후원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기도가 진행됐다. 2부 회무는 총무 박진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역보고 가운

데서는 10월 예정된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 경비 문제 등에 대해 나눴다. 월례회는 유상열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아대책은 폴름비어,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89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 1명당 한 달에 30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에서 볼 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 단체사진

피종진 목사 8월부흥성회

● 올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최은숙 목사) 010-9549-0035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 오전 World 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장소 서울 창조사자연사박물관(관장 박승식 목사)

1(월) 오후 부산 예림교회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3(수) 세종 소망교회 (최은숙 목사) 010-9549-0035

4(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041) 852-2211

5(금)~6(토) 전인 위대한학교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8(일)~11(목) 전인 위대한학교 (원장 피종진 목사 임미향 목사) 010-8623-6391

12(금) 오전 한국기독교 원로성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원훈 장로) (차기회장 백 일 장로) 010-6272-7004

장소 서울 중로 연합여전도회관

12(금) 오후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장소 서울 중로 연합여전도회관

14(주) 오전 수원선성장로교회 (노준호 목사) 010-3350-9698

제 225차 해외성회 (225th Overseas Assembly)

15(월) 일본(JAPAN) 동경 나라타 갈멜산힐링센터 중국인특별성회 (원장 김태실 선교사) 81 90 6535-9118

16(화) 일본(JAPAN) 동경 우에노 예수사랑의교회 홀리스초청성회 (Rev. Stepan jung 선교사)

17(수) 일본(JAPAN) 동경 나라타 예수사랑의교회 (Rev. Stepan jung)

18(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회 노숙인 목요정기전도집회 (준비위원장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인 선교회)

19(금) 일본(JAPAN) 동경 나라타 총화신학교 정경양

22(월)~26(금) 베트남 (Vietnam) 주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농노회 (노희정 신영호 목사) 교육부장 김광성 목사 010-8920-3541

장소 PUKUOK Milia hotel

장사 피종진 목사 (남서출 중앙교회)

30(일)~9.1(목) 한국교회에매회복운동본부 제주컨퍼런스 Conference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장소 제주시 오솔로호텔 Lecture Hall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머무는교회 설립 3주년 기념예배에서 김문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머무는교회 설립3주년 감사예배

“교회공동체, 아픔이 있는 자가 회복될 수 있어야”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3주년 감사예배가 7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문수 목사는 “지금까지 머무는교회 인도해 주시고 설립3주년 감사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3년간 무탈히 세워져왔다. 불안정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다.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지켜주신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머무는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김문수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조슈아이 집사 기도, 김채원 자매 바이올린 특별연주와 김홍진 집사 특송이 있었다. 이어 김문수 목사가 ‘교회의 사명(마 9:3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문수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미주전체 5개중 한교회가 없어졌다. 한인타운만해도 108개 교회가 문을 닫은 아픔이 있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5개 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이 많았다. 교회가 규모 있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더라도 책망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주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칭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회가 땅에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사명은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항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도 항상 성도들을 가르쳤으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되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땅 끝까지 선교해야 하고 쉬지 말고 나눔과 구제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치유사역이다. 치유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병, 약한 것이다. 모든 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다. 교회공동체는 아픔이 있는 자가 들어와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하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와서 성도들 통해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문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7회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무너진 믿음의 집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제7회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5일과 6일 개최됐다. 6일(토) 퍼시픽팍 리조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린 둘째 날 컨퍼런스 첫째 시간은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스가랴서를 강의했다. 고승희 목사는 “스가랴서는 절반은 환상의 책(1-6장)이고 절반은 예언의 책(7-14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였다. 70년의 종살이 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다”며 “70년의 기반을 버리고 오직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성전재건의 진척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 당시 바벨론 지역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이 성전재건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스가랴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해 가는가? 성전이 재건된 뒤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며 “성전 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너진 믿음의 집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시간은 김성환 목사(가나광방)가 마가복음을 강의했다. 한편 첫날(5일)저녁에는 지용주 목사(시라쿠스한인교회)가 출애굽기를 줌으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CABC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가’를 도산 파파 5중주단이 연주하고 있다

라크마 평화음악회 성황리에 열려

음악으로 표현한 ‘평화, 희망, 우정’ 감동의 극치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앤 코랄(대표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이 6일(토) 오후 7시 L.A.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인 여성 2세대들이 중심이 된 ‘우먼 크로스 DMZ’ 단체의 활동을 협력하고 알리는 취지로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영국 민족주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를 오프닝 곡으로, 이곡은 라크마 합창단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 소프라노 Svetla Vassileva, 베이스 Boris Martinovich가 솔로리스트로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우리 민족의 오랜 숨결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희망을 선사하는 곡 ‘아리 아리

랑’을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Svetla Vassileva가 불렀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표현한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가’를 도산 파파 5중주단이 연주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우크라이나 지휘자 맥심 쿠진의 지휘에 맞춰 연주가 되었다 또 날 울트디즈니 콘서트홀을 찾은 관객들이 전원 기립하여 환호를 보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100만불의 후원금을 받았다

월드미션대학교 철학박사 학위과정 신설

‘영성’이란 단어 오용 막아야...전인적인 영성회복 필요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실천신학 철학박사(Ph.D) 과정을 개설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금번 철학박사 과정 개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금) 11시 본교 회의실에서 갖고 이 과목 디렉터로 일하게 될 정재형 교수와 철학박사 과정을 소개했다. 정재형 교수는 연세대 철학을 전공하고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종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12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전공 주임교수로 18년을 섬겼다. 연대에서 Ph.D과정의 중심과 부심으로 19학기 경험을 가졌다. 정교수는 이제 WMU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그는 ‘신학은 인간학이다’, ‘자아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를 비롯해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정 교수는 이날 개설 과목에 관해 설명하면서 “영성과 상담을 통합하기 위한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토대 및 가능성을 연구하며 신학, 영성, 심리학 분야의 통합을 통해 인간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상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이란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믿음이나 신앙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영성이란 말이 마구 남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신분야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며 “신학과 역사의 배경에 따라 그 영성의 이해도 달라지고 부분적인 이해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금 전인적인 영성 회복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영성 형성의 역사, 주요인물, 성경적이고 신학적 근원 등

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성 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진 총장은 “우리학교가 처음 개설하는 Ph.D 과목이다. 흔히 철학박사 과정이면 교수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여건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쉽게 과정을 오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철학박사 과정 디렉터로 모신 정재형 교수님이라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철학박사 과정 개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 교수님과 같이 그동안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오신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WMU의 실천신학 Ph.D 과정은 과목수강(32학점), 개별지도 연구(8학점), 논문 연구를 위한 외국어와 연구방법, 종합시험, 학위논문(8학점) 등 총 48학점으로 구성된다. 과목수강은 8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기초필수 2과목, 영성분야 3과목, 상담분야 3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 4학기동안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과정이수를 위해서는 약 3만 달러의 등록금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는 학교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목회학박사와 선교학박사 등 전문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이과정으로 편입하게 될 경우 최대 16학점이 인정된다. 신입생 모집은 2023년 봄학기부터이며 구체적인 입학요강과 입학 자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213-388-10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 및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OC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 및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이하 OC교협), OC 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한인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OC장로협의회 회장(김생수 장로), OC기도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다니엘 새벽기도회는 지난 1일(월)부터 시작해서 24일(토) 총 21회로 마치게 되며, 장소는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 시무, 8700 Stanton Ave. Buena Park)이며 시간은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총 21회)이다. 한편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25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 김한호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강사로 섬기게 된다. ▲ 문의: (714)722-4805

시니어대학 가을학기 개강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 대학이 8월 16일 화요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으로 18주 동안 진행된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학훈을 내걸고 진행되는 본 대학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커리큘럼으로는 1) 성경파노라마, 2) 음악 교실, 3)난타 교실, 4) 건강체조 & 힐링댄스, 5) 하모니카 교실, 6) 두뇌훈련 아트 교실, 7) 캘리 크라피 교실, 8) 클레이 아트 교실, 9)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등록금은 매월 50불.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 장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 113 Buena Park CA 90621이다. ▲ 문의 (714) 833-2710, (562-833-5520)

한여름밤의 금요일워십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한여름 밤의 금요일워십을 ‘Again, 다시 한 번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45분에 갖는다. 일정은 12일(금) 말씀콘서트이며 강사는 김우준(토렌스조은교회)이다. 19일(금) 기도콘서트, 26일(금) 찬양콘서트로 갖는다. ▲ 문의: (818)834-7000

제6회 명곡아카데미 음악회

명곡오페라 아카데미(뮤지컬디렉터: 에스더 진)이 주최하는 제6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가 21일(주일) 오후 4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공연입장료는 50달러(디너포함) ▲ 문의: (213)605-5810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 2022 은혜의 한마당 집회

이지선교수,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은 기적”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2022 은혜의 한마당 집회를 8일(주일) 오전9시와 11시 예배시간에 가졌다. 천상필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11시 예배는 김관기 권사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는 뒤, ‘삶은 선물입니다(고후 4:6-7)’라는 제목으로 이지선교수(한동대학교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이지선 교수는 “대학 4학년 때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다. ‘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의식 없이 생사기로 있을 때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고 막막한 현실을 보게 되고 절망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

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는 음성이 있었다.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세상가운데 반드시 세우고 병들고 힘든 자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흉터를 가진 내 자신을 흉터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날개아래 살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트라우마를 겪고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꽤 관용은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자들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천상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인터뷰

<9면에서 계속>

집바르웨에의 의사부부를 파송하여 양리학 교수로 재직하게 했으며 소화재활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그의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도 박대표의 사역의 손길이 뻗어있다.

■ ‘건강한 아프리카와 꿈꾸는 아프리카’위해

분당 샘물교회에서 장로장립되었으나 현재는 예정 활동축광야의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50회 이상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에 사랑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다. ‘건강한 아프리카와 꿈꾸는 아프리카’를 모토로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구체적으로 △건강한 아프리카(의료인 양성) △기쁜 아프리카(아동 및 청소년을 위

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리더로 양육), △행복한 아프리카(아프리카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 △가족 공동체(모든 스텝, 임원, 현지 파트너와 기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등 4가지를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박 원장은 “이미 2019년 남가주에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법인이 설립된 후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아틀란타 지역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미주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선교 바람이 불어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더 나은 아프리카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은 벨리 새생명교회 지성은 목사의 첫째 딸(심활경 사모)의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허버드에 보냈는데 나오지’을 금년 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은 목사와 사돈지간이 되었다. <박준호 기자>

아버지 판 '요게벳의 노래' 들어볼래요? 기독교 애니메이션 콘텐츠기업 '키바스'



광고계 스타 감독, 스토리보드 미다스의 손, 영화 시나리오와 마케팅 전문가가 손을 잡으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까. 블록버스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렸다면 오산이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결과물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애니메이션이다.

“최근 들어 부쩍 선교지에서 우리 콘텐츠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에 몰입한 세 사람이 보였다. 한지선(43) 키즈 바이블 애니메이션 스토리(키바스) 대표, 채은석(59) CF 감독, 스토리보드 작가 임재욱(45) 감독이다. ‘다윗과 골리앗’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등 이들 손에서 탄생한 콘텐츠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 영어 버전으로 제작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편은 조회수 123만(2022년 8월 7일 현재)을 기록 중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일학교 교사 회의실에서 나눌법한 대화 내용과 달리 이들의 ‘본캐(본래의 캐릭터)’는 광고 영화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다. 채 감독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동신사)’, ‘엘라스티넨 했어요(패션뷰티)’ 등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리즈 광고로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스타 감독이다. 한 대표와 영화 ‘숙명’ 예고편 작업을 함께 했던 임 감독은 영화 ‘싸움의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의 연출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영화, 광고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하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 대표가 영화 마케팅 업계에서 끝을 마주하게 되면서부터다.

“광고 전공으로 대학원 졸업한 뒤 영화사에서 기획, 마케팅하며 정신했이 20~30대를 보냈죠. 영화 ‘국제시장’(윤재균 감독·2014)을 작업하다 출산을 하게 되면서 ‘경년녀(경력 단절 여

성)가 됐어요.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다음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줄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감하게 뛰어들었죠.”(한 대표)

채 감독은 “4년 전 충북 제천에서 영화제 마무리하던 날 한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감독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이행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50여년 전 어머니께서 10장 남짓한 그림책을 넘겨 가며 고래 배 속에 갇힌 요나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건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출발선 위에는 몇 가지 목표가 세워졌다. ‘핑크퐁처럼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 ‘파라부르기 쉬운 멜로디’ ‘지루하고 엄숙한 느낌을 지울 것’ ‘성경 이야기를 각인시킬 것’. 2017년 가을 ‘키바스’란 이름으로 출발해 기획, 시나리오 작업, 스토리보드 메이킹, 모션 애니메이션 등 1년여 과정을 거친 첫 결과물로 ‘다윗과 골리앗’이 탄생했다. 채널에는 성경 속 주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쇼츠(shorts) 등 3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최근엔 키바스의 애니메이션 ‘아브라함의 순종’편에 짧게 삽입됐던 노래를 풀버전 뮤직비디오 ‘사랑하는 아들이’로 선보였다. 어머니의 기도를 노래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요게벳의 노래’(영평안)의 아버지 판이라 불리는 곡이다. ‘요게벳의 노래’가 어린 아들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려냈다면 ‘사랑하는 아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아들을 범죄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담았다.

초등학생 두 아들의 아버지인 임 감독은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라면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들 얼굴을 매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점을 몰입할 수 있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채 감독

은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 누워있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교차되는 순간이 하이라이트”라며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엑소(EXO)의 쉐, 몬스타엑스, 포레스텔라의 앨범, 드라마 ‘펜트하우스’ ‘VIP’ ‘고스트 닥터’ 등의 OST 작업에 참여한 신예준 음악감독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고, 신예 보컬리스트 조대근이 나지막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곡을 소화하며 귀를 사로잡았다.

일상에선 상업 광고, 대중 문화 영역을 누비는 전문가들이기에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도 있다. 채 감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이삭이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는 장면 등은 어떻게 묘사하는냐에 따라 시작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회의를 거치며 긴밀하게 논의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감독은 “상업 마케팅은 광고주나 투자자를 만족시킬만한 매출과 수익에 목표를 두지만 키바스의 작업은 완전히 다르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속 인물이 슬랩스틱(신체적 개그를 통해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을 하거나 동물들이 방귀를 꾸며 등장하는 장면을 고민할 땐 ‘아, 내가 일상과 전혀 다른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기독교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태프가 ‘본캐’같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면서 ‘키바스’ 사역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셈이다.

한 대표는 “문화예술계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께 위해 쓰임 받고 싶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며 “이들이 달란트와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복음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부쩍 다음 콘텐츠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한 대표는 “콘텐츠를 보고 ‘만들어줘서 고맙다. 다음 편은 언제 나오느냐’는 연락을 받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엔 창조부터 재림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불어권선교회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

불한성경 제2판 발간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이다.” 위클리프 바이블(Wycliffe Bible Translator) 창설자 카메론 타운센트의 말이다. 한국에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배경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인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략) 불한성경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어권 지역에서 분투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좋은 선교 도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불어권선교회 전 이사장 홍문수 목사)

“2013년 불한성경이 출판된 기쁨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9년 만에 재판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불한성경이 처음 출간된 후 그간 불어권 선교 현장에서 깊숙이 사용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한국불어권선교회 대표 이몽식 목사)

프랑스와 한국어를 나란히 실은 불한성경이 제2판으로 간행됐다. 최종 서간대 명예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2013년 최초의 불한성경이 나온 데 이어 9년 만에 성서적 표현과 불어 설명 등을 교정해 재판을 발행했다.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CCMF)가 주도했다.

한글성경은 대한성서공회 발행 개역개정판이 사용됐고, 불어성경은 1978년 라콜롬브(la Colombe) 판이 실렸다. 페이지마다 12개의 불어 단어를 제시하고 한글로 뜻을 풀었다. CCMF는 “불어를 사용하는 50여 개 지역과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불어권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나 한국인 성도들,



이주민 사역이 활발한 이 시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불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영어권 지역에 편중돼 있어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선교 취약지역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24개국이 불어권이

며 특히 서부 사하라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확산돼 더욱 불어권 선교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한국불어권선교회는 1992년 설립 이래 서부 아프리카 등지에 파송할 선교사의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제주 교회의 만남 “주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연합 여름성경학교

“서울 양평동교회와 제주 행원교회에 다니는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연합 성경학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5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행원교회(김요한 목사) 들락날락센터에서 서울 양평동교회(김부개(원래 캐릭터가 아닌 부수적 캐릭터)로 동역하고 있다. 저마다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면서 ‘키바스’ 사역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셈이다.

한 대표는 “문화예술계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께 위해 쓰임 받고 싶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며 “이들이 달란트와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복음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부쩍 다음 콘텐츠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한 대표는 “콘텐츠를 보고 ‘만들어줘서 고맙다. 다음 편은 언제 나오느냐’는 연락을 받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엔 창조부터 재림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매리는 공동체 의식이 좁혔다.

김경우 목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서울과 제주의 믿음 공동체가 복음의 비전을 그리자고 의기투합하면서 연합 성경학교가 마련됐다”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요한 목사도 “서울과 제주에서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더 큰 결 배우는 것 같다”며 “일방적인 도움의 단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오전 성경공부가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미니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서 400m 떨어진 구좌중앙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목회자와 교사, 학생 등 90여명은 오후 내내 이어진 미니 올림픽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단체 줄넘기 게임에는 두 교회 담임목사와 부서 담임 교역자까지 참여하면서 열기를 더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서울과 제주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재미에 푹 빠져드는

“전쟁 중인 평화 생각해야” ... 전문가,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모색

GNU지속가능발전센터 발족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전략 포럼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는 가좌캠퍼스에서 GNU지속가능발전센터 발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국립대와 우크라이나, 드림팜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한국ESG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은 “대(對) 우크라이나 국제개발협력지원(ODA) 활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국립대와 우크라이나, 드림팜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ODA 총액은 약 4조원이다. 이중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계획인 ODA 예산은 24억 5800여만원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2024년까지 예정돼 있는 42억6900여만원의 우크라이나 ODA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게 됐다.

홍 이사장은 “전쟁 등으로 우크라이나에 집행하려다 미집행

된 ODA 예산을 우크라이나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집중 활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신규로 증액된 ODA예산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집중 활용하면 경제적·외교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 조계만 생명자원과학과 교수는 “주거 연계 스마트팜 모델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시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10평짜리 큐브형 주택 활용이다.

조 교수는 “스마트팜과 연계한 모듈형 사무실 모델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사무실보다 전후 재건을 위한 주거 공간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좋다”면서 “한국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면 바로 피관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부처시 세르히이 예브투센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관리자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커뮤니티의 기업 복원과 개발’을 주제로 발



표했다.

예브투센코 관리자는 “부처시 수도인 키이우에서 25km 거리로 가까운 데다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고 한국에서도 진입하기 좋다”며 “현재 부처시는 국가 재건 전략을 세웠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곳엔 산업단지도 있고 경제 칼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IT인력의 우수함을 알리며 한국정부, 기업과의 협업을 기대했다.

예브투센코 관리자는 “디아’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봤나. 우리가 개발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엔 우수한 IT인재들이 존재하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 IT기술이 앞선 한국과의 협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로들의 성자’ 맹익순 선생 순직 70주기 추모예배

수용소 안에 광야교회를 세워 중공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해

서울 남대문교회(손윤탁 목사)가 7일 교회 본당에서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해 복음을 전했던 ‘포로들의 성자’ 맹익순(1926~1952) 선생 순직 70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조선신학교 학생이면서 남대문교회에서 봉사하던 맹 선생은 6·25전쟁 발발 후 피란을 떠났지만 미군이 인민군으로 오향하면서 부산 지산면 거제리 포로수용소에 억류됐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수용소 안에 광야교회를 세워 중공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곳은 맹 선생에게 땅끝과도 같았다. 오해가 풀려 석방될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포로들과 함께 지내다 2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소설가 정연희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맹 선생은 20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103회 정기총회에서 순직자로 지정됐다.

이날 설교는 강성영 한신대 총장이 ‘살아오는 날의 은혜’를 주제로 전했다. 강 총장은 “맹 선생은 전쟁 중 교회의 공적 사명을 통해 복음이 지닌 참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다 순교했다”면서 “사유화하는 기독교 신앙이 만연한 한국 교회에 맹 선생이 삶으로 보여준 공적 신앙은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총장은 “한국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억울하게 포로수용소에 갇혔지만, 그는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신앙의 선배”라면서 “그의 고결했던 삶은 현실과 타협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이 된다”고 밝혔다.

예배에는 맹 선생이 남대문교회 중등부 교사 때 가르쳤던 제자 손호인(90) 집사도 참석



했다. 예비역 공군 준장인 손 집사는 “맹 선생님은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가셔서 이 땅에 남은 혈육이 계시지 않지만, 선생님께 복음의 진리를 배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선생님의 삶을 증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손윤탁 목사는 “맹 선생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신앙의 후배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면서 “그의 삶이 증언한 십자가 정신이 남대문교회와 한국 교회에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계속 다시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했다.

선교의 창 (19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계약(契約)적 모델을 통한 세계선교

한인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다. 1988년 이래 격년으로 치러졌던 선교한국이나 KWMC가 주관했던 CHICAGO 선교대회 등 그간 크고 작은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헌신을 했다. 그러나 정작 선교사로 나간 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선교구조나 후원 아니면 선교신학의 부재인가? 복합적이다. “선교사”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일생 동안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다. 위대한 선진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적 결단을 했다 할 지라도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어떤 이는 평생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래저래 한인교회는 잠재적 선교인력과 자원에 비해 표출되는 선교사 수는 너무나 미미하다.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불물이 터지듯 선교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선교를 향한 계약적 모델이 한 대안이다. 이는 오랜 선교역사를 가진 서구 선교사회에서 일 반화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제 한인교회도 이러한 방안을 우리 특성에 맞게 소화할 때가 되었다.

1. 기도를 통한 세계선교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이에 우리는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 선교를 향한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

기회를 정하고 생명을 건 탄원 이어야 한다. 그리고 때가 차면 평가를 한 후 다시 재 서원을 하

는 남을 돕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선교이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받침 속에 중보기도로 싸움에 임했다. 이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가 승(昇)할 때 아군이 승하고 그의 기도가 쇠(衰)할 때 아군이 쇠했다. 이때의 승패는 전면에 있는 여호수아 보다 후면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 이처럼 기도사역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 기도는 그리스천에게 최고의 무기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자신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로 선교할 것인가? 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세계선교를 위해 어느 주기로 얼마 동안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 선교적 기도는 다니엘처럼

면 된다. 선교는 기도이다. 기도 없는 사역은 주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적 기도사역은 인간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2. 헌금을 통한 세계선교

오늘날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 후원금은 그 방법적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외부로 나가는 선교헌금부터 끊는다. 또한 담임목사가 바뀌면 인건관계와 자기 목회철학에 따라 후원 선교사도 교체되기 일췌하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리켜 파리 목숨이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설명 하나 없이 후원금이 중단되면 선교사는 마음이 무겁다. 비단 재정적인 타격뿐

만 아니라 영적 비애를 느낀다. 후원교회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부담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선교헌금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와 함께 헌금을 정한 때에 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다. 형편에 따라 송금할 액수가 다르고 날 자도 들쭉날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Term)을 정해 계약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이 방안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피차간에 선한 유익을 준다. 개인이나 교회도 상황변화가 크다. 이런 속에서 무작정 마르고 닳도록 선교헌금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안에서 일정기간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후 때가 차면 내규에 따라 후원을 연장하

약에 묶이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도 들며 해마다 사역도 업그레이드(Upgrade) 될 것이다. 단 기선교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바람만 일으키고 다니는 것 보다는 한 우물만 집중적으로 팔 때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다른 한 방법은 교단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교의 사례를 보자. 저들 교단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든 남자들은 2년, 여자는 1년 반 동안 교회에서 선택해주는 곳에 가서 선교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이성교제/학교공부/일 등이 금지되고 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돌아갈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기독교 선교도 교단이나 단체

된다. 보통 서구 선교기관은 4년 텀으로 계약을 한다. 그들은 매 안식년마다 평가를 한 후 다음 텀을 재계약한다. 계약적 선교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건 강한 대안이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데이빗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처럼 처음부터 평생 선교사로 결단하라고 다그치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지원할까? 대나무는 매들의 연속이다. 선교사역도 대나무처럼 텀이라는 매들 안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한 텀, 두 텀 이렇게 계약가운데 사역이 지속될 때 마음도 가볍고 더 집중할 수 있다. 매들이 없는 선교사역은 자기를 돌아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병역이 중국에는 사역을 내려놓기 쉽다.

5. 맺음 말

한인 세계선교! 우리는 지난 날의 무대포(無鐵砲)적인 선교를 지양하고 이제는 좀 더 전략적인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역기간을 정한 계약적 선교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한 달은 하루가 쌓여서 되고 일 년은 한 달이 쌓여서 된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선교여행(Mission Trip)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단기 선교(Short Term Mission)로 발전하게 되며 후에 장기 선교(Long Term Mission)로 한 텀, 두 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흐름은 순리적이다. 처음부터 무리한 결정을 하면 자칫 올 무가 되며 파송하는 선교부나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근시 거리도 잘못 보는데 원시 거리까지 담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좋은 계약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잘못된 계약은 곧 끝이 난다. 따라서 계약적 선교모델은 우리 한인교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한인세계선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선교사와 후원교회 나아가 선교본부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엮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jrsong007@hanmail.net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이다.
계약적 선교는 많은 이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방안이다.**

면 되고 만일 그것이 불가할 경우 정중한 양해를 구하면 된다. 기간을 정한 계약적 헌금은 서로를 편하게 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한다.

차원에서 이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장기 사역을 통한 세계선교

근세 선교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뼈를 묻었다. 당시 여러 선교사들은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헌신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 다. 만일 그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어떠할까? 뼈를 묻는다는 정신은 가상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 전략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바울은 한 곳에서 뼈를 묻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속히 이양하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 갔다. 현대는 팀워크로 하되 사역지에서 선교를 가능한 빨리 위임하고 떠나주는 것이 요구

3. 단기 사역을 통한 세계선교

COVID19 전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를 앞 다투어 해 왔다. 그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낳았다. 역기능이 된 주된 이유는 많은 팀들이 바람 쐬러 가듯 준비 부족과 더불어 단 회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단기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계약적 단기선교가 답이다. 이를테면 A 교회가 B 선교사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8월 초순에 단기 사역 팀을 보내겠다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서로가 계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1강 / 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거룩(레 1-22장)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나니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나니라’(레 19:1,2)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근친상간의 범죄를 행하지 말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레 19:3, 20:9) 신상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레 19:4, 26:1)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레 19:5) 화목 제물을 먹는때는 기간 안에 먹고(레 19:6-8) 곡식을 거둘때에도,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고(레 19:9,10) 도둑질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말고(레 19:11)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말고(레 19:12) 이웃을 억압도 착취도 말고 품꾼의 삯을 제 때주고(레 19:13) 장애인에게 못되게 하지 말고(레 19:14) 재판관 공의로 하고(레 19:15) 비방하지 말고 이익 때문에 살인하지 말고(레 19:16) 형제를 반드시 견책하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레 19:17)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레 19:18).

그리고 가족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레 19:19) 정혼한 여종과의 동침도 규례가 있고(레 19:20-22) 가난한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 차에는 모든 과실을 하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같은 동족으로 여겨 사랑하고(레 19:33,34) 재판에도 계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추과 예바와 힌을 사용해야 합니다(레 19:35,36).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레

3:8,17, 13:5, 33:3).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쟁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레 20:2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와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몸도 더럽히

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만짐으로 더럽힐 수 없고(레 21:1-4)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므로 머리털도 수염도 깎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레 21:5-8) 과부도 아닌 처녀로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레 21:13,14).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행음을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였으므로 불살라야 합니다(레 21:9).

특히 관우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성물을 먹지 못하며 해 질 때에야 정해진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드는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레 22:1-9).

그 외에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을 규례와(레 22:10-16)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규례(레 22:17-30)를 말씀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레 22:19,20,21,23,25,27,29).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22:31),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22:32,33)고 반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나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하나님의 열심....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5년차 부터 먹으면 그 소산이 풍성할 것입니다(레 19:23-25). 무엇이든 피째 먹지 말고 점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레 19:26) 머리카락을 동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레 19:27)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며(레 19:28)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고(레 19:29)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레 19:30) 신성한 자와 박수를 만지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도 말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레 19:31,32, 20:6,27).

20:23)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레 19:37, 20:8,22).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레 20:7).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시작으로 쟁과 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셨습니다(출

지 말아야 합니다(레 20:25).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레 20:26).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지켜야할 규례를 말씀합니다(레 21:1).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인즉 죽은 자가 그의 가

웃을 찢지 말며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관우가 머리에 있을 때에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레 21:10-12). 아론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화제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레 21:17-24). 심지어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고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안성된 언약 (계 11:18-19) 찬 162장

일찍 깨나 팔 재앙은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상 받을 자들을 보여줍니다. (18) 선지자와 성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교회가 환난을 잘 통과함으로 받는 상입니다. 여호와 경외심 곧 경건이 모든 상급을 얻게 합니다. 둘째, 그와 달리 멸망할 자는 누구입니까? 분노하는 이방(18)으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역한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를 받습니다. 철장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의는 큰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셋째, 안성된 언약의 증표(19)가 나타납니다. 사도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성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속 성취의 표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우박)으로 나타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화 적그리스도의 출현 (계 12:1-2) 찬 391장

언약의 완성을 향해 남은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자는 땅에 사나 하늘에서 난 자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흉내를 내는데 발달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이한 모습 곧, 표범, 곰,

사자를 합한 괴물의 모습을 가진 짐승으로서 마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항상 어린양의 대응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용이 주는 큰 권세로 언약의 흐름을 방해하여 마귀의 뜻을 세우려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 출현하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분별하여 새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살아갑시다.

수 적그리스도의 무기 (계 12:3-5) 찬 519장

본문은 세상에 있는 적기독이 어떻게 활동함을 보여줍니까? 첫째, 그는 기이하게 만드는 기사와 기적을 사용합니다. (3) 머리가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온 땅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치료는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그는 용의 하수인으로 일합니다. (4) 적기독은 철저한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꼭두각시로 활동합니다. 그리

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만이 이런 혼란을 이깁니다. 셋째,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적기독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립니다. (5)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과 거짓된 순종과 교묘한 교훈을 진리로 분별하여 참자유를 누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의의 병기로 싸워 이깁시다.

목 짐승을 이길 자 (계 12:6-9) 찬 489장

적기독을 이길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받은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 비방하는 적기독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6) 성경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유혹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와 싸우는 적기독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만 이깁니다. (7) 이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적기독의 일들을 부셔지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깁니다. (8)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된 택함 언약의 백성만이 이런 역한 계계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때에서 그 배후의 세력인 적기독을 반드시 이길 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금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 (계 12:10) 찬 410장

사도가 본 이상 속에 적기독을 이기는 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속속이 분명 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고 나갈 때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주장할 때 마귀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둘째, 성도의 인내가 이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실패합니다. 환난과 난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의 뜻은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이깁니다. 일어나는 현재의 자극적인 일에도 인내로 주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셋째,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놓으신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전적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그 약속을 적용하여 그 승리를 누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자입니다. (롬 8:37)

토 거짓 선지자의 출현 (계 12:11-14) 찬 370장

교회의 절대 승리를 아는 적기독은 교회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묘함을 잘 알아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첫째, 어린양이나 용처럼 교묘하고 힘있게 유혹합니다. (11) 어린양의 태도로 나타남은 의도적으로 어린양을 대적하기 위한 그의 교활한 수법입니다. 둘째, 용처럼 말합니다. (11) 적기독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는 교묘한 말(비진리)로 성도를 현혹시킵니다. 그의 목적은 온 세상으로 적기

독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그는 기적을 이용합니다. (13-14) 그리고 그는 땅에 거하는 자로 위상을 만들어 적기독을 섬기도록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적기독을 전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비참한 시대일수록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기이한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분별력을 가집시다.

기독교교육 (10)

기독교교육의 필요성(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기독교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모임으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 역사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를 중심으로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델이 제시하는 것처럼 예배와 성경공부와 전도와 봉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양 떼(마 26:31; 눅 12:32; 요 10:16; 21:15, 17); 가족(막 3:33-35); 하나님의 자녀(요 1:11-12); 포도나무 가지(요 15:1-8); 그리스도의 몸(롬 12:4-5; 고전 12:12-27; 엡 1:22-23; 2:14-26; 3:3-13; 4:1-16; 5:30; 골 1:18, 24; 2:16-19; 3:15);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10:32; 11:22;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딤후 3:5); 하나님의 밭(고전 3:9); 하나님의 집(고전 3:9); 하나님의 모든 교회(고전 11:16); 그리스도의 신부(고후 11:2-3; 엡 5:25; 32; 계 19:7-9; 21:9); 아브라함의 자손(갈 3:29);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갈 6:15);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 새 사람(엡 2:14-20); 하나님의 여러 교회(살후 1:4);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2:15);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 사귀(요일 1:3).

교회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가 따르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표현들의 공통적인 의미 둘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13-17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6:18-19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인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셋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사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고전 3:16-17; 6:19). 하나님은 개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더해져 교회가 성장할

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증명합니다.

교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며, 마태복음 28:19-2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에베소서 3:10-11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4대 기능, 즉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사역을 통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룹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works)와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계시를 통해 구원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곧 예배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기능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이가 발달단계에 따라 젖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에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의 대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편애와 조건이 없어야 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교회의 4대 기능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각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교육은 예배가 의미 있게 드러지도록 돕습니다. 교육은 전도자가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도록 훈련합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더욱 효과적인 경험이 되게 합니다. 또한, 교육은 인적, 재정적, 물리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교회의 유기체적인 본질과 위대한 사명이 깊이 살펴보면 본질을 살리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 1등상: \$500
 - ▶ 2등상: \$300
 - ▶ 3등상: \$150
 - ▶ 장려상: 0명 - 상품
 -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GOD IS LOVE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것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독교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호사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광복절 77주년과 건국절 74주년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 회장 최학량 목사

8.15가 광복절 임은 한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런데 건국절이며 아울러 건국절임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날임을 잘 알고 있다. 이날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참 놀라운 경축일이다. 기쁨과 설렘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버마,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해방됐다. 감격의 날임에는 분명하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직접 역눌린 백성들을 건져 내신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경축의 날이다. 건국절이란 아마 생소한 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이날 경축사에서 선포된 내용에서 비롯한다. "금년 8.15는 해방 기념 외에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해 경축하는 날"이라고 경축사에서 밝혔다. 이듬해 1949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이라고 건국절을 강조하셨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절 선포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그 기쁨은 잠시 대 혼란에 급속히 빠져들었다. 혼돈과 무질서, 온갖 약탈, 살인, 방화, 범법 행위는 물론 이념 투쟁과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난립하여 저마다 애국자인 양 으스대며 세 확장에 돌입했다. 소련 공산당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지령을 내려 임시 위원회를 급조했다. 이듬해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단독 정권을 수립하며 발 빠르게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변혁 조치를 서둘렀다. 드디어 1947년 2월에 이르러서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라는 북한의 정부를 수립했다. 결국, 북한은 남한과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이루어졌다. 아쩨 수 없이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분단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승만 박사는 남한 만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한에 이르게 되어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로 한국문



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엔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시켰다.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남북한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 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승만 박사는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건국 원칙으로 내 세운 그의 결단을 이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국과 유엔총회에 타진하며 건국에의 길로 매진해 나갔다. "공산주의를 하면 망합니다" 반공을 역설했다. 이승만은 먼 훗날까지 예리하게 예상했다. 정적들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에의 길로 꾸준히 기도해 승부를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강력하게 추진해갔다. 건국의 성취는 이승만의 투철한 애국 충정과 믿음,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그의 강력한 추진력이 승부수였다. 1948년 2월 26일 남한 정부 수립 가결, 5.10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 선출에 인구수가 남한보다 적은 북한을 배려하여 100석을 비워 두고 200명을 선출토록 하고, 5.31 국회를 구성, 7.17. 헌법 제정 공포(북한 우리 동포들도 이 헌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고 말함) 7.27 이승만 박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에 이른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공포 대통령 취임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숨 가쁘게 성취된 것은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임에 틀림이 없다. 건국절을 알자 세계 어디서든지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을 경축하자. 생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느 국가나 건국

일이 있다. 건국이야말로 그쳐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 희생의 값이 치러져 쟁취된 대가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건국일을 모르고 기념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불충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하는 불행이다. 지구촌 곳곳이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 천재지변 속이 없는데도 하나 되고 성한 곳이 없는데도 하나 된 것을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셔서 광복 제 77주년과 아울러 건국 제 74주년을 맞이하게 해 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

**** 참고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를 살펴본다.****

*박정희 1978.2.26 "금년은 정부 수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전두환 1987.1.12. "건국 40주년이 되는 내년에 위대한 신진 민주 조국을 새로 탄생시키는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

*노태우 1988.8.15 "건국 40주년을 맞는 이제 민주, 번영, 통일의 시대"

*김영삼 1993.8.15. 1919년을 건국으로 시사

*김대중 1998.6.16. "우리는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았다"

*노무현 2003.8.15. "58년 전 오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 공화국을 세웠다."

*이명박 2008.8.15.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다."

*박근혜 2016.8.15.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

*문재인 2017.8.15. 1919년을 건국으로 주장

선교 편지 페루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계가 불경기와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Covid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봅니다.

이곳 페루 사역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키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며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곳 페루로 몰려든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큰 은혜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 독립기념일을 기회로 삼아 인근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약 120여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분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동시에 그들의 전통음식을 대접하며 독립기념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서 타향 생활을 하며 온갖 차별과 서글픈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의 새로운 영혼을 얻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향한 새로운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사역지는 그 이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사역지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각 사역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에 제



아내인 김혜린 선교사는 찬양 사역을 위한 반주자 양성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사역을 위한 반주자 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매주마다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가운데 사역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기독교학교를 통한 교육선교는 아직까지 준비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페루에서도 팬데믹 상황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에 이제는 기독교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 먼저 시설(담장, 교실 확장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후반부터 고산병으로 인한 폐 고향입 진단을 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약 80% 정도의 진전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3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며 만약 상황이 더 나가지 않으면 저지대로 철수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과 아내의 건강을 위

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큰 아들 김민준 군이 이곳 시골학교에서 공부해 왔는데 미국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민이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또 더 감사한 것은 미 해병대 ROTC에 자원하여 4년 동안 학비에 대한 전 장학금을 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동안 필요한 기숙사비나 생활비 등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이곳 모든 사역지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2. 베네수엘라 난민 사역이 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각 사역지마다 찬양사역 반주자 및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4. 각 사역지마다 시작될 어린이 급식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5. 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6.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저와 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아들 하민이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김도경 / 김혜린 사모 gabrielkim100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안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 Tel: (646) 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 3, 5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광안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민복음화위원회: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Hackensack,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6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9, http://or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9-4040, www.k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군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제77주년 광복 감사 부흥집회 교회 회복 부흥 세미나

광복 감사 부흥집회

일 시: 8월 14일(주일) 오후 7시
*오후 6시부터 친교 및 다과.

교회 회복 부흥 세미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월 1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차세대 리더 목회자를 선정, 1천 불씩 재정지원을 합니다"
*주관처에서 점심 제공.

장 소: 주님의영광교회(시무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주 관: 남가주교계연합회(Southern California Churchs Association)

협력단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민주평통LA, 한국기독교총연합회미주총회, 올림픽경찰서, LA 카운티교회연합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5G전략연구소, 예장국제총회, RPCA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만희복지재단,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총현선교교회, 미주양곡교회, 세계성경장로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하늘문교회, 해돋는교회, 주님의사랑교회, 실버레익한인교회, 하톤교회, 새마음교회, 미주예문선교회, 예빛교회, 영원한복음장로교회, 빅토빌복음교회, KBS America, SBS, CBS TV 미주기독교방송, 한국일보, 중앙일보, 코리아타운데일리, 크리스천버전,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찬위클리,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기독교일보, 기독교뉴스.

강사:



소광석 목사 (새애인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남가주교계연합회 조직



신승훈 목사 (상임대표회장) 지용덕 목사 (준비위원장) 류당열 목사 (공동회장) 한기형 목사 (공동회장) 이정현 목사 (사무총장) 진건호 목사 (서기) 김엘리아 목사 (회계)

남가주교계연합회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 자문단



브레들리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마동환 변호사 미리암 김 변호사 이현숙 변호사

*당일 현금 전액은 '차세대 리더 목회자 선정'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사문의: (714)390-9197 사무총장 이정현 목사